

삼성·LG·현대차 印공장 ‘셋다운’ 재계 초긴축경영 돌입

코로나 확산에 글로벌 공급망 붕괴
경영계획 수정 등 생존전략 마련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해외 생산기지가 곳곳에서 일시 가동을 멈추고 있다. 현대·기아차 미국 공장에 이어 국내 기업들의 주력 생산기지인 인도 현지 공장 컨베이어 벨트도 당분간 돌지 않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하자 인도 정부가 내놓은 지침에 따른 것이다.

글로벌 공장의 연쇄 셋다운으로 인한 생산 차질 및 수요 급감, 금융시장 대혼란에 따른 유동성 우려 등 복합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주요 대기업들은 초긴축 경영에 돌입하고, 연간 경영 계획을 수정하는 등 생존 게임에 나섰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인도 노이다가 속한 우타르프라데시 주정부의 지침에 따라 25일까지 이틀간 스마트폰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노이да 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이다. 삼성전자가 2018년 기존 공장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며 세계 시장 공략의

차세대 거점으로 육성하는 곳이다. 연간 삼성전자 스마트폰 생산량의 약 40%인 1억 2000만 대의 스마트폰을 생산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인도 정부 방침에 따라 노이다 생산법인을 25일까지 일시 폐쇄한다”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 공장에 있는 냉장고 등 가전 생산 라인도 함께 가동을 중단했다.

인근 그레이터노이다의 LG전자 가전제품 공장도 같은 기간 가동을 멈춘다. 이 공장에서는 TV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의 가전이 생산된다. 남부 첸나이의 현대차 공장도 정부 방침에 따라 31일까지 문을 닫는다. 기아차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 공장의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 일단 23일 하루 동안 셋다운하기로 결정했고 추가 가동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현대차 공장의 연간 생산 규모는 70만 대이며, 지난해 가동을 시작한 기아차 공장은 올해 연간 생산능력을 17만 대로 늘릴 방침이다. ▶9면에 계속 송영록 기자 syr@하유미 기자 jscs508@·유창욱 기자 woogi@

▶‘코로나19’ 관련 2·3·4·6·13·18면



도쿄올림픽 사실상 연기

23일 일본 도쿄역 앞 물웅덩이에 ‘2020 도쿄올림픽’ 카운트다운을 알리는 시계가 비치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이날 도쿄올림픽 연기에 대해 4주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IOC의 결정은 ‘완전한 형태로 실시한다’는 우리의 정책에 부합한다”고 말해 연기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관련기사 6면 도쿄 AP=연합뉴스

〈금감원〉 ‘키코 배상’ 거부한 産銀 “실제 손실 없었다”

내부 ‘법률 검토 보고서’에 명시
설명 의무 위반 ‘불완전판매’ 부인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금융당국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 조정과 관련해 “파생거래로 실제 발생한 손실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산업은행은 금융감독원의 키코 배상 권고안에 수용 불가 입장을 전했다. 이에 ‘수용 불가’의 근거가 된 산업은행 내부 법률 검토 보고서가 확인되면서 불수용 입장을 전달한 시중은행들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관련기사 8면

23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산업은행의 ‘키코 배상안 관련 법률 검토 내용’ 내부 문건에는 “거래 기업인 일성의 파생거래 손실은 외화유입액 이익으로 상쇄돼, 실제 발생한 손실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한 분조위의 배상 결정이 내려지자 외부 법무법인에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했고, 해당 법무법인은 산업은행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의결을 통해 일성하이스코의 피해 금액이 약 2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혀, 산업은행과 분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특히 산업은행의 배상안 거부는 이동걸 회장의 강한 의지였다는 것이 금융권 내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면서 이 회

장과 윤석현 금감원장의 충돌로 확정되는 양상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손실이 없다는 문구는 헤지의 개념에서 봐야 한다”며 “환율이 올라서 키코 상품에서는 손실이 발생했지만 외화유입액은 이익이 났으므로 전체로 보면 손실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키코 계약은 약속한 환율대로 원화와 달러를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화유입액으로 계약을 정상결제한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8면에 계속

나경연 기자 contest@

‘통화스와프 효과’ 하루 만에 날린 증시

코스피 5.34% 폭락·환율 20원 급등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23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34% (83.69포인트) 급락한 1482.46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423억 원, 3625억 원을 매도했다. 개인은 홀로 9214억 원어치를 매수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오전 9시 6분 2초에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전일 대비 7.21% (15.55포인트) 급락함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전 9시 17분 34초에 6.19% 하락해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원·달러 환율은 20원 급등한 1266.5원에 거래를 마쳤다. 국채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서울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46%포인트 오른 연 1.153%로 마감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새마을금고 재무건전성, 어디와 비교해도 자신 있습니다

TOPIC 1. 새마을금고는 안전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새마을금고는 1983년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은행보다도 먼저 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해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왔습니다. 또한 예금자보호준비금 이외에 지불준비금제도라는 이중 안전 장치가 있어, 새마을금고 고객은 언제든지 예·적금을 안심하고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준비금과 지불준비금 합계액 10조 2천억원

TOPIC 2. 새마을금고는 성장합니다 (꾸준한 당기순이익)

새마을금고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총실익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2019년	190조원	2019년	7,227억원
2018년	163조원	2018년	7,027억원
2017년	150조원	2017년	6,145억원

<자산> <당기순이익>

TOPIC 3. 새마을금고는 든든합니다 (재무건전성)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 이외에도 총 자산의 약 8%에 달하는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이익잉여금 6조 3천억원, 출자금 7조 9천억원

새마을금고는 고객의 예·적금 대부분을 안정적인 담보대출로 운용하며, PF대출 등 위험 대출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연체대출금 비율 또한 1.85%로 (2019년 말 기준) 상호금융기관 중 우수합니다.

※ 상호금융권 재무건전성 수치 (2019년 9월 / 금감원)

구분	총자산순이익률(ROA)	연체율	고정비율
새마을금고	0.39	2.21	2.40
타상호금융기관	0.34	2.47	2.60

TOPIC 4. 새마을금고는 꼼꼼합니다 (리스크관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리스크관리·내부통제 전담부서를 운영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감독을 통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TOPIC 5. 새마을금고는 함께합니다 (사회공헌사업 및 코로나지원)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말 기준으로 사회공헌사업에 1,559억원을 지원했으며,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1,036억원의 긴급금융지원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원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정성을 모아 11억원의 성금을 지원했습니다.

※ 사회공헌 분야별 추진 실적

총계	복지지원	복지투자
155,866	30,309	125,557

(단위 : 백만원)

TOPIC 6. 새마을금고는 다짐합니다 (자산 200조 달성)

57년간 지역주민의 곁을 지켜온 새마을금고는 자산 200조원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으로부터 받은 사랑, 든든한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금융을 더 가까이

MG새마을금고



· 사회적 거리두기 · 함께 나누기
· 서로 배려하기 · 바이러스 바로 알기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메가커피의 하형운 대표, 윤지유 세종다점점주와 함께 화상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공정거래위원회

로열티 면제·현금 지원·식재료 무료 공급… “점주님과 위기 극복” 상생 팔 걷은 가맹본부

메가커피 등 87개 가맹본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이들 가맹본부는 가맹수수료(로열티)·식자재 공급가 인하 및 면제, 현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으로 가맹점주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성옥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하형운 메가커피 대표 및 세종다점점주와 온라인 화상 간담회를 갖고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가맹본부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으로 외출·외식·모임 등이 감소하면서 매출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들이 늘고 있다. 이에 ‘가맹점이 살아남아야 본사도 산다’는 상생 의지로 17일 기준 87개 가맹본부가 착한 프랜차

이즈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소속 가맹점수는 총 8만4548개다. 87개 가맹본부가 속한 업종은 커피업, 외식업, 자동차수리업, 편의점업 등으로 다양하다. 이들 가맹본부는 소속 가맹점주에 대해 로열티 인하·면제, 식자재 지원, 광고·판촉 지원, 휴점 지원, 임대료 등 자금지원, 방역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커피업종의 경우 메가커피가 대구·경북지역 가맹점 로열티를 2개월간 면제해주고 있으며, 커피 원두 20kg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전 가맹

에 대해서는 현금 100만 원과 방역물품을 지급하고 있다. 이디야커피도 전 가맹점주에 대해 로열티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원두 한 박스 무상 지원과 세정제 및 마스크 제공(20억 원 규모)에도 나서고 있다.

외식업종에서는 롯데리아가 전 가맹점주에 로열티 면제 및 위생용품·방역비용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휴점 매장 물품대금 납부 연장도 시행하고 있다. 김밥전문점인 암샘 김밥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자가격리 대상이 돼 2주간 휴업하게 된 가맹점주에게 매장 임대료 160만 원을 지급했다. 교촌치킨은 대한적십자사의 대구지사에 2억 원을, 맥시카나치킨은 대구 지역에 1억 원을 성금으로 전달했으며 연안식당은 일선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에게 꼬막비빔밥 도시락 1만 개를 제공했다.

자동차수리업에선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가 전국 1374개 가맹점에 로열티를 3개월

간 50% 인하(대구·경북 가맹점은 면제) 해주고 있으며, 기아자동차 오토큐도 전국 가맹점 800곳에 같은 지원을 하고 있다.

편의점 업체인 GS25는 대구·경북지역 가맹점에 위생용품키트(마스크·손소독티슈 등) 무상 배포했으며, 감염 의심자 방문 점포에 대해선 자체 방역비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확진자 방문 점포의 도시락 등 신선식품 폐기비용을 본사 전액으로 부담하고 있다.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미니ストップ도 GS25와 비슷한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CU(씨유)는 여기에 더해 ‘가맹점주 상생협력펀드’로 가맹점주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조 위원장은 이러한 가맹본부들의 가맹점주 상생 지원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더 많은 가맹본부들이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갤러리아百, 식당가 매장 관리비 전액 면제

210억 규모 동반성장펀드 운영
납품대금 최대 17일 조기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두 달 가까이 꺾이지 않자 유통업계의 ‘고통 분담’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 협력사 지원책 마련은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물품을 기부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매장 수수료 인하, 21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 운영 등 상생 협력 방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갤러리아는 이달 개점한 광고

사업장을 제외한 전 사업장의 식음료 브랜드를 대상으로 매출 감소에 비례한 수수료 인하 지원에 나선다.

갤러리아는 식당가와 푸드코트에 입점한 전체 161개 브랜드 가운데 대기업을 제외한 영세·중견기업 및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118개 협력업체 브랜드를 대상으로 매출 감소 폭에 따른 수수료 인하를 진행한다. 인하된 수수료는 다음 달 입점 브랜드에 지급하는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다.

또한 갤러리아는 식당가 매장 22곳 가운데 영세·중견기업 및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17곳을 대상으로 3월 직접 관리비를 전액 면제한다. 백화점 식당가 매장은 매출 수도 및 광열비 등을 실사용량에 따라 직접 관리비로 납부하는데, 관리비 면제로 각 식당가 매장

은 평균 14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 밖에도 갤러리아백화점은 중소기업 협력업체 350여 개사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체결을 진행 중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150억 원 규모 우리은행 협약 동반성장펀드 운영 △60억 원 규모 산업은행 협약 일자리창출펀드운용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지원(지급일 대비 약 2주 조기 수령 금융상품 알선) △축산 직거래 업체 생산장려금 지원 등의 금융 지원을 포함한다.

또 납품대금 지급 조건을 △생식품 영세 직매입 업체 월 3회 대금 지급(현금결제비율 100%) △납품대금 조기 지급(기존 지급일 대비 최대 17일 선지급) 등으로 지원한다.

박미선 기자 only@



마스크 나누고 행복은 두 배로…

2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서울시-구세군 주최 ‘코로나19 극복 마음 나눔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이 취약계층을 위해 보던 마스크를 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마일로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함께합니다

KSPC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기금 조성
스포츠토도, 경문·경정사업 등을 통한 체육진흥기금 조성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
국민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 등 건립 지원



체육복지사업 지원
체육인 연금, 저소득층 스포츠강좌이용권, 국민체육100 등 지원



체육진흥기금 지원
생활체육, 알리트체육, 장애인체육 등 육성 지원



국제대회 개최 지원
평창동계올림픽 등 각종 국제대회 개최·유치 지원



스포츠 과학 연구 및 스포츠 산업 육성
스포츠 정책 개발, 스포츠 과학 연구·산업 활성화

내달 6.5兆 만기폭탄 비상... 신용평가 자진 반납도 속출

기업, 자금조달 빨간불

“벼랑 끝으로 내몰린 느낌이다. 정부가 내놓은 채권시장 안정펀드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지금껏 돌아온 빚은 근근이 막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 빠져든 후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다.”

기업의 자금조달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진 상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금융 위기로 번지면서 기업들은 유동성 확보에 비상이다. 올해 갚아야 할 빚만 38조 원.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로 기업들의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지만, 기업들의 두려움은 어느 때보다 크다.

한진·두산·CJ그룹 등 몇몇 대기업들은 유동성 위기설에 휩싸였고,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 애쓰지만 여건은 녹록지 않다.

크레딧 시장에서는 신용등급 ‘AA’ 기업들까지 자금조달(회사채 수요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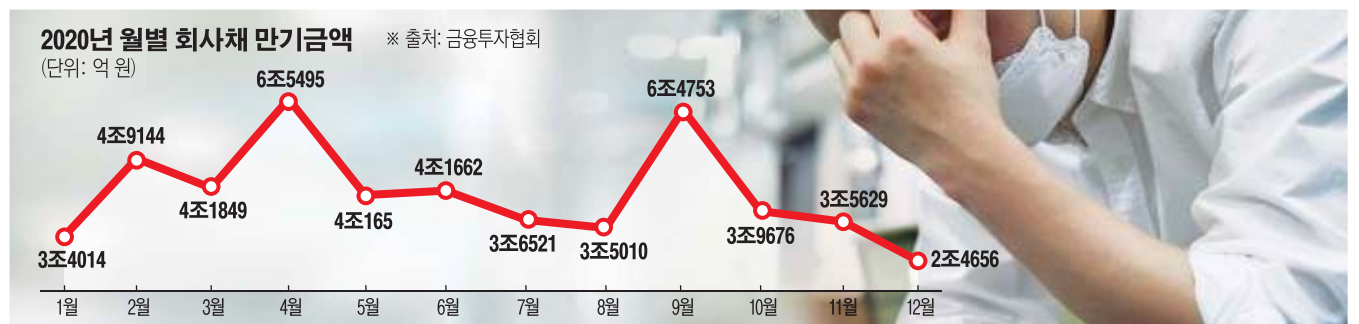
정부 10兆 유동성 지원하겠다고지만 기업들 올해 갚아야 할 빚만 38兆 A급 회사채도 미달 속출 ‘투자경색’ S&P, 韓기업 23% 신용등급 ‘부정적’

롯데쇼핑·하나투어 등은 평판을 우려해 신용등급을 자진 철회했다.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회사채 발행이 가장 많은 달로 꼽히는 4월에 만기 도래액은 6조5495억 원에 달한다.

3월 이후 연내 만기 도래 규모는 38조 원이다. 정부가 채권시장 안정펀드로 급한 불을 끄겠다고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연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최근 들어 ‘A’급 이하 채권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심지어 우량기업조차 채권 수요에 즉(사전 청약) 미달이라는 굴욕을 맞고 있다. 신용등급이 ‘AA-’인 포스파워는 3년 만기 회사채 500억 원어치를 발행키 위해 수요예측에 나섰지만, 400억 원의 매수 신청만 들어와 발행 목표액에 미달했다. ‘AA’등급인 하나은행과 ‘BBB’ 등급인 키움캐피탈 등이 회사채 수요예측에서도



모두 모집금액을 채우지 못했다.

한광열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한다면 기업의 실적과 기초체력은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다”면서 “기업들의 무차별 투자 경색까지 더해진다면, 크레딧 시장 불안이 기업들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등급을 자진 철회하는 곳까지 나오고 있다. 불량기업으로 ‘낙인’ 찍히는 것을 우려해서다. 투기등급 직전인 ‘Baa3’ 평가를 받는 롯데쇼핑은 무디스가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추자 등급평가를 자진 철회했다. 롯데쇼핑 측은 “미국 달러 차입 계획이 없어 무디스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27일 롯데쇼핑 주주총회를 앞둔 상황에서 ‘신용등급 강등 우려’라는 악재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일반투자 목적으로 롯데쇼핑 지분 6.10%를 보유하고 있다.

하나투어는한국기업평가의등급평가를 취소했다.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이미 1% 밑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0%가량 줄어든 73억 원에 그쳤다.

시장에서는 ‘등급 쇼프’ 우려까지 고개를 든다. 등급쇼프이란 증권 발행회사가 여러 곳의 신평사 중 유리한 등급을 부여하거나 부여할 것 같은 신평사로부터 선택

적으로 평가를 받는 행위를 일컫는다.

S&P는 현재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국내 기업 39곳(금융회사 제외) 가운데 약 23%를 ‘부정적’으로 본다. S&P의 평가 대상은 삼성전자나 현대차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 넷 중 한 곳이 신용등급이 떨어질 위기에 놓였다는 얘기다.

특히 여행, 레저, 항공산업에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예전보다 등급 쇼프는 많이 사라졌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신용등급 자진 철회나 유리한 신용평가 회사를 찾는 기업들이 늘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예린 기자yerin2837@



‘그랜드 워커히’ 한 달 휴업 23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호텔 객실과 일부 영업장의 임시 휴장 안내문이 놓여 있다. 그랜드 워커히 측은 객실은 이날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휴장하지만, 식음료 매장은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총 “기업들 생사의 갈림길… 법인세 22%로 낮춰달라” 호소

국회에 40개 입법건의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선 기업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와 같은 조치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경총은 20일 국회에 경제·노동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 과제를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총은 건의서에서 “지난해 우리 경제가 수출, 투자 등 실물경제 주요지표 부진이 지속되고 1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2%의 경제성장률에 그쳤다”며 “올해는 연초부터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글로벌 경제가 초대형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경총은 기업들이 코로나19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회가 법인세 최고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 폐지 및 완화를 요구했다.

경총은 “주요 경쟁국보다 높은 법인세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세율 인하와 최저한세제 폐지와 같은 세제 개선으로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경영 안정성 차원에서는 감시위원 선임 시 3%를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25%

인하,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 및 저지기간 연장 등을 건의했다. 또 탄력근로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과 특별(인가)연장근로 허용 사유 확대,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 분야 입법 과제도 건의서에 담았다.

경총은 균형 잡힌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사업장 내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 금지 항목을 신설해야 되고, 쟁의행위시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비용·저생산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만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매년 이뤄지는 보험료를 결정주기도 최대 5년으로 명시하고, 2022년까지 한시 지원하기로 된 건강보험 국고 지원은 상시화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요인에 복지 확대 등 정책적 요인이 겹치면서 기업과 국민 부담 여력을 넘어서는 지출 증가로 전체 사회보험의 장기적 수지 불균형이 우려된다”며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선진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에서 수급인과의 협력·조정 등 역할을 명확히 한정하고,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폐지 및 축소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정 총리 “방역조치 위반 집회 단호한 법적 조치”

보름간 ‘사회적 거리두기’ 고삐 전국 교회 42% 주말 예배 강행 종교·유흥시설 운영 중단 강권 지침 위반 땀 행정력 동원 제재

정부가 앞으로 2주를 고비로 판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나선다. 최근 확진자 증가가 주춤하고 있어 집단감염 차단이 성과를 거둔다면 격리환자가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종교시설을 비롯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정부는 행정력을 동원해 이를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4명이 늘었다고 밝혔다. 총누적 확진자는 8961명으로 늘었다. 반면 격리해제는 257명이 증가하며 3166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누적 확진자에서 격리해제 인원을 뺀, 현재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는 전날보다 200명이 줄어든 5684명으로 기록됐다.

코로나19 격리환자는 최근 꾸준히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확진자 증가폭보다



격리해제 숫자가 많고, 전날에도 확진자와 격리해제 차이는 201명에 이르렀다.

이 같은 격리해제 감소 추세에 앞으로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침이 더해지면 격리 중인 환자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방역 당국은 22일부터 종교·체육·유흥시설에 운영 중단을 강하게 권고하며 보름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고삐를 죄고 있다.

다만 방역 당국은 아직 선부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내비쳤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방역총괄반장은 “오늘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이 자체가 안심할 수준은 전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국내 상황들에 대해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측면에서 대응을 해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방역 당국은 종교 행사를 비롯해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력도 동원한다.

중대본의 교회 방역수칙 준수 상황 점검 결과 전국의 교회 4만5420곳 중 2만6104

개소(57.5%)가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다. 하지만 지난 주말에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3185곳에 대해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정세균<사진>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집회 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모임에 참석한 개인은 물론 우리 공동체 전체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장관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각 지자체는 이에 근거해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종교시설에 대해 점검을 진행 중이다. 감염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지시가 내려지고, 이후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통해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얼마만큼 성공을 거두느냐에 따라 생활방역 수준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후에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어느 정도 보장된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

車 수요·공급 동시 위축 ‘전례 없는 위기’

정부 “행정·금융 모든 수단 지원”

유럽·美 완성차 공장 휴업

유럽發 부품 수급 차질 대비

신속 통관·수송 편의 제공

부품기업에 유동성 공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자동차 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정부는 행정, 금융 지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업계와 함께 위기를 헤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자동차 산업의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위축되는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서 무엇보다 이 파고를 견뎌내고 생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자동차산업 회관에서 국내 완성차업체별 협력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제는 유럽발 부품 공급 차질과 전 세계 수요 위축의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와 자동차 업계가 함께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코로나19로 한국 완성차 수출의 69.1%, 부품 수출의 54.2%를 차지하는 유럽과 미국의 완성차 공장과 판매점이 휴업에 들어가면서 완성차와 부품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특히 유럽에서 수

입하는 일부 부품은 수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도 크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유럽에서 많이 수입하는 주요 부품의 재고 상황을 긴급 점검한 결과 현지점에서 한국 완성차업체는 1~2개월 이상의 재고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는 자동차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과 금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유럽발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 업계가 안전재고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 통관, 수송 편의 제공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1일부터 시행된 신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조치가 어느 정도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올해 차량 구매를 최대한 당겨 집행을 독려하는 등 추가적인 내수 진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품기업이 당면한 위기를 버텨낼 수 있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한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주력산업 채권담보보증권(P-CBO) 공급 규모를 7000억 원에서 1조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기업별 지원 한도도 대폭 늘린다. 올해 정부의 자동차부품 기술개발 자금 3200억 원은 상반기 중 신속하게 집행한다.

19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소기업 특별보증 등 50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추가적인 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한 자리씩 띄어앉기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으로 대중교통 거리 확보를 발표한 다음 날인 23일 서울 지하철 객실 내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한 자리씩 떨어져 앉아 있다. 중대본은 거리두기가 쉽지 않은 지하철, 버스의 경우 승객 간 거리를 확보하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뉴스

유럽發 입국자 1442명 중 유증상자 152명

“미국서 유입 확진자도 증가세”... 방역당국, 입국자 검역 강화

유럽·미주로부터 내국인들의 귀국이 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도 증가 추세여서 정부가 비상에 걸렸다.

2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가 전날보다 64명이 늘었는데 이 중 14명이 해외 유입 사례였다고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발표했다. 이 중 13명은 검역 단계에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유럽이 6명, 미주가 8명이었으며, 국적별로는 13명이 내국인이었다. 최근 유럽·미주를 중심으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유입이 증가세다. 누적 해외 유입 사례는 144명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22일부터 유럽발 항공편 입국자들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2일 유럽발 항공편 6편으로 들어온 입국자는 1324명이었으며, 1221명이 내국인이었다. 카타르 등 경유자를 포함한

전체 유럽발 입국자는 1442명이었으며, 유증상자 152명은 공항 격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았다. 나머지 유증상자는 임시 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중이다.

유럽·미주 외 국가로부터 코로나19가 유입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아시아 2개국(일본·말레이시아), 중동 1개국(이란), 오세아니아 1개국(호주)에서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다. 아프리카에서도 남아프리카공화국(240명)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세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가장 많이 해외 유입 환자가 생기는 것은 유럽이지만 미국에서 유입한 입국자 중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필리핀도 일부 환자 보고가 진행되고 있어 현재 모든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와 자가진단 애플

리케이션(앱)을 통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속 유입 환자가 증가하게 되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방역총괄반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정세균 총리가 유럽 외 다른 지역의 입국자들에 대한 검역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며 “조만간 검역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도 종교·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전문가들은 ‘3차 유행’ (3rd Wave)을 차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 본부장은 “현재로서는 2주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확하게 원칙대로 잘 실시하면 많은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갑자기 급격한 유행으로 전파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내린 임대료 연내 인상 땀 50% 세액공제 제외

코로나 세법 시행령 개정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서 부동산 임대, 사행시설 관리, 금융보험업은 소득·법인세 감면을 못 받는다. 또 임대료 인하 후 올해 말까지 애초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를 높게 인상하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17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화 조기 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코로나 세법)과 관련 조특법·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4월 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감면과 관련해 감면 적

용배제 업종을 부동산 임대·공급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전문직 서비스업 등으로 규정했다. 또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20%)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상가임대료를 인소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50% 세액공제와 관련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 후 올해 말까지 애초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를 높게 인상하거나 5% 초과해 인상한 경우 적용배제 사유로 규정했다.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소상공인 업종은 유흥업소나 도박게임 등 제조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등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등이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의무 한시 면제도 부동산임대업과 유흥주점업은 적용이 제외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한은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증권사로 확대

한국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비은행기관에 통화안정증권 및 국고채전문딜러(PD)를 하는 증권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RP대상증권과 대출담보증권에 일부 공기업 특수채도 포함할 예정이다. 아울러 증권사 유동성 공급을 위해 24일 RP매입을 실시할 계획이다.

23일 한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한은 RP매매 비은행기관에 기존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 신영증권, NH투자증권, 한국증권금융 외에도 통안채 및 PD 증권사를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통안채 경쟁입찰모집 비은행기관은 11개사로 기존 RP

매매 기관에 포함된 4개사를 제외하면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 KB증권, 키움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차증권이 새롭게 포함되는 것이다. PD 증권사는 총 10개사로 역시 RP매매 비은행기관을 제외하면 교보증권과 대신증권, DB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메리츠증권증권이다.

RP대상증권과 대출담보증권에 일부 공기업 특수채가 포함될 예정이다. 한은은 또 24일 증권사 유동성 공급을 위해 14일물을 2조5000억 원 규모로 RP매입할 예정이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여야 비례정당 공천 ‘꼼수 경연장’ 전략

한국, 1번 윤주경·2번 윤창현
‘황교안 개입’ 선거법 위반 논란
더시민, 권인숙·윤미향 등 확정
與, 6~7명 ‘의원 꺾주기’ 추진

여야 비례위성정당의 비례대표 명단 확정 작업이 윤곽을 드러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 등록은 26~27일까지인데 이번 총선에선 지역구 후보의 단일화보다 비례대표 후보 공천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거대 양당의 의석수 독점을 깨고 다양한 유권자의 뜻을 반영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총선에 처음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꼼수’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비례대표 후보 1번에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을, 2번에 윤창현 전 한국금용연구위원장을 공천했다. 윤 전 원장을 포함한 영입인재 5명도 당선권인 20번 내에 이름을 올리며 순번을 대폭 수정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 대표가 10번, 탈북자 출신 인권운동가 지성호 나우

(NAUH) 대표가 12번, 전주해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15번을 부여받았다. 관심이 쏠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 알려진 유영하 변호사는 탈락했다.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두고 통합당과 신경전 끝에 한선교 전 한국당 대표가 사퇴한 지 나흘 만에, 새 공관위가 들어선 지 이틀 만에 최종안을 낸 것이다. 앞서 한국당은 500여 명의 공천 신청자를 ‘3보 면접’을 통해 후보 명부를 만들었다가 황교안 통합당 대표 측의 반발로 지도부를 전면 교체했다. 또 한선교 한국당 전 대표는 자신이 황 대표로부터 박진·박형준 전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하는 등 잡음이 터져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 황 대표는 이날 “저는 당 대표로서 밀실공천, 폐파공천, 구태공천과 단절하기 위해 노력했고, 늘 반복된 대표 ‘사천’ (私薦)도 그 싹을 잘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처럼 황 대표가 한국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란 주장이 나온다. 정의당은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고 당 대표이자 총선 후보자가 다른 정당 지지를 호소한 것은 명백한 부정선거”라며 황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시민당은 권인숙한국여성정책연

구원장과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등을 포함해 비례후보 34명을 확정했다. 더시민당은 애초 출범할 때부터 1번부터 4번까지는 소수정당 후보들이, 5번부터 10번까지는 시민사회계 후보들이, 11번 이후부터는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순번을 배정받기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어 비례대표 순번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더시민당의 정당투표 기호를 높이기 위해 최소 6~7명의 불출마 현역의원을 파견하는 이른바 ‘의원 꺾주기’를 추진한다. 전날 최고위에서는 신창현·이규희·이훈 의원 등 지역구 의원 3명과 심기준·정은혜·제윤경·최운열 의원 등 비례대표 의원 4명의 이름이 언급되기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통합당에 법적 대응까지 했던 민주당이 친문 세력 중심으로 ‘위성정당’을 만들면 최소한 명분도 없는 것”이라며 “의원 꺾주기 시도는 물론 비례후보들에 대한 당적 이적 권유까지 통합당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게 ‘꼼수의 경연장’ 아니고 무엇이겠냐”라고 반문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내년부터 초소형 청소·세탁차 생산

정부, 특수차 차종 신설

내년부터 국내에서도 유럽처럼 초소형 특수차(청소·세탁·소방차 등) 생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도교통부는 23일 현재 진행 중인 초소형 전기 특수차 실증사업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1년 초소형 특수차 차종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 분류체계(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초소형은 승용·화물에만 있고 특수차에는 없어 초소형 특수차(청소·세탁·소방차 등) 생산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말부터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전기특수 자동차 개발 및 안전기준)을 초소형 소방차 등 4종 40대로 추진 중이다. 초소형 특수차의 차종 신설을 통해 새로운 완성차 시장 창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최근 자동차 기술발달 및

튜닝시장 활성화 등으로 인해 기존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차종 분류 규정에서 일부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초소형 화물차 적재함 최소 면적 기준과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현행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최소면적 기준이 일반화물차와 같게 규정(2㎡ 이상)돼 있어 제작 여건상 이를 준수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하므로 현실에 맞게 완화(2㎡→1㎡)한다.

차종 분류 기준상 삼륜형 이륜차 경우 적재중량이 자동차 안전기준상의 적재중량보다 적어 안전기준을 충족함에도 차종 분류 체계와 일치하지 않아 적재함을 적게 생산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적재중량을 안전기준과 같게 적용(60kg→100kg)한다.

국토부는 이러한 자동차 차종 분류 체계를 개선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은 24일 입법 예고하고 5월부터 단계별로 추진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코스피 1500 붕괴 23일 코스피가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1490선을 밑돌며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83.69포인트(5.34%) 내린 1482.46, 원·달러 환율은 20.00원(1.60%) 오른 1266.50, 코스닥은 23.99포인트(5.13%) 내린 443.76으로 마감했다.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 주식 시세 전광판. 신태현 기자 holjjak@

무협 “2분기 수출 전망 7년 만에 최저”

석유제품·철강·車 등 악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분기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수출 여건을 파악하는 척도인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SBI)는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3일 국내 915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2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2분기 ESBI는 79.0으로 2013년 1분기(78.4) 이후 7년 만에 80 아래로 떨어졌다.

ESBI는 다음 분기 수출 경기에 대한 국내 수출기업의 기대를 나타내는 지표로, 100 이하면 향후 수출 여건이 지금보다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뜻이다.

품목별로는 △석유제품(59.7) △철강 및 비철금속 제품(61.2) △무선통신기기(63.2) △기계류(67.1) △자동차(71.2) △반도체(77.0) 등 품목 대부분에서 수출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해외 수요 부진, 조업 중단과 운송계약에 따른 원

부자재 조달 차질 등을 악화의 배경으로 들었다.

반면, △선박(124.7) △가전(104.7) △농수산물(103.3)의 수출은 다소 개선되거나 전 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선박은 주력 선종인 액화천연가스(LNG)선과 초대형원유운반선(VLCC) 인도 증가, 조선사 주주 회복이 점쳐졌고 가전과 농수산물은 한국산 선호도 증가 등이 수출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항목별로는 모든 항목이 90 이하를 기록하면서 수출 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할 예정이다. 수출기업들은 △국제 수급 상황(68.5) △수출대상국 경기(72.7) △상품 제조원가(78.8) 등이 크게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가 국제 수급 상황을 가장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기업들의 2분기 주요 수출 애로 요인 역시 △수출대상국 경기 부진(17.2%) △원재료 가격 상승(14.9%)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어 △바이어의 가격 인하 요구(12.1%) △물류비용 상승(10.8%)이 뒤를 이었다. 유창욱 기자 woogi@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YES

필승코리아 펀드

필승코리아 시즌2

우량 채권의 안정성을 더한 필승코리아 30[채권 혼합]펀드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필승 코리아 펀드는 미래 성장이 예상되는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산업 및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우량 기업에 투자합니다

필승 코리아 30펀드는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주식에 30% 이내로 투자하고 채권을 더해 안정성을 키웠습니다

필승 코리아 펀드는 운용보수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소재, 부품, 장비 기술 관련 대학 및 연구소에 지원합니다

※ 이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투자자는 펀드기금을 결정하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 투자설명서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수 및 수수료 외 증권거래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0-00835호(2020.02.27~2021.02.26) ※ 환매방법 : 15시 30분 이전(경과 후) 환매청구 : 2(3)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4)영업일에 지급 ※ 보수 및 수수료 : Class A : 총보수 0.877% (판매 0.340%, 운용 0.500%, 기타 0.037%), 납입금액의 0.5% 이내 선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없음 ※ 운용회사 : NH-Amundi자산운용

투자, 문화가 되다

NH투자증권

코로나 팬데믹에 올림픽 연기까지…

돈·체면 다 잃은 아베

IOC “올림픽 연기, 세부 논의”
캐나다·호주 등도 보이콧 압박
아베 “선수건강 우선” 꼬리 내려
일본, 경제 피해 90조 달할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Pandemic·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도쿄올림픽 연기 가능성까지 현실화하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몰렸다.

아베 총리는 23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도쿄올림픽의 완전한 실시가 어렵다면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히론게이사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앞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전날 긴급 집행위원회 회의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올림픽 연기를 포함해 관련 시나리오의 세부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앞으로 4주 안에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도 “IOC의 결정은 ‘완전한 형태로 실시’라는 우리의 정책에 부합한다”며 “선수 건강을 최우선으로 둔다면 연기라는 판단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IOC가 4주라는 데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이미 아베 총리나 다른 나라 올림픽위원회 모두 ‘연기’로 가닥을 잡는 모습이다. IOC 성명이 발표되자마자 캐나다올림픽위원회와 패럴림픽위원회가 국가올림픽위원회 중 처음으로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지 않으면 불참할 것이라고 보이콧을 선언했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 다른 영연방 국가도 이날 캐나다와 비슷한 입장을 피력했다.

아베에게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다. 그에게는 올림픽을 화려하게 성공시켜 일본이 2011년 동일본 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6년 8월 21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하계올림픽 폐막식에서 슈퍼마리오 분장을 하고 깜짝 등장해 2020년 도쿄올림픽을 홍보하고 있다.

리우데자네이루/AP뉴시스

지진 충격에서 벗어나 완전하게 부흥했다는 메시지를 세계에 전달한다는 꿈이 있다. 또 아베가 내년 9월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평생 숙원이었던 개헌을 마무리하려면 올림픽 성공이라는 성과가 필요하다.

이에 아베는 국가원수라는 체면도 버리고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폐막식에 게임 주인공 ‘슈퍼마리오’ 분장을 하고 등장하는 등 도쿄올림픽에 공을 들였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뜻하지 않은 역사적 사태로 난관을 맞게 됐다.

전문가들은 올림픽 ‘취소’가 아닌 ‘연기’라 해도 일본의 경제적 손실이 6000억~7000억 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영향까지 포함하면 일본의 올해 경제적 손실 규모가 7조8000억 엔(약 90조 원), 국내총생산(GDP)의 1.4%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닛케이이 전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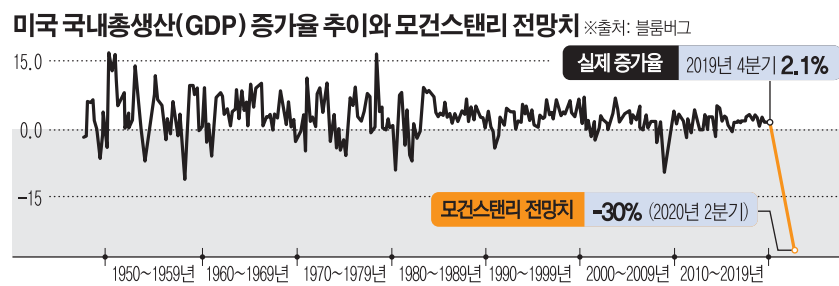
‘2兆 달러’ 트럼프 부양책, 집안싸움에 제동

“미국 경제 2분기 -30% 성장”
‘R 공포’에도 상원투표서 부결
주식선물·국제유가 폭락 패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충격파로 미국 경제가 리세션(recession·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음이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약 2조 달러(약 2556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첫발도 못 떤고 난항에 직면했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경기부양책 입법화를 위한 절차투표를 실시했다. 그러나 찬성과 반대 각각 47표씩 나와 가결에 필요한 60표에 못 미쳐 부결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까지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했으나 첫걸음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은 근로자 보호나 기업 통제 등의 측면에서 여당인 공화당의 안이 미흡하다며 기업들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게 근로자 보호 조항을 부양책 법안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공화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또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에 강한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나 공



화당은 주식 매입을 통한 약한 수준의 통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규모, 주정부에 대한 지원 세부내용 등을 놓고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경기부양책을 발의할 계획을 밝힌 상태다.

미국과 전 세계가 사상 초유의 전염병에 의한 대불황에 직면한 가운데 정치인들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다시 패닉에 휩쓸렸다. 이날 다우와 S&P500, 나스닥 등 뉴욕증시 3대 지수 선물은 약 5% 이상 급락,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서는 지수 선물에 거래된 지 불과 몇 분 만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했다. 원유 선물 가격도 8% 이상 빠져 지난주의 가파른 하락세를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결국에는 협상을 타결할 것”이라고 낙관론을 피력했으나, 현재 미국 경제를 둘러싸고 비판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들은 22일 미국 경제가 기존

예상보다 더욱 심각한 리세션에 빠질 것이라며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최대 마이너스(-)30.1%로 사상 최악의 침체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JP모건 체이스는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14%, 골드만삭스는 -24%를 기록할 것으로 각각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모리스 옴스펠드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버클리 분교(UC버클리) 교수는 “세계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동조화된 생산 활동 중단을 목격하고 있다”며 “이와 비견될 만한 사례는 대공황뿐”이라고 지적했다.

제임스 볼러드 세인트루이스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2분기 미국 실업률이 30%로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미국 GDP가 반토막 나는 미증유의 침체가 예상된다”고 충격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차고에서 만드는 DIY 마스크

미국 인디애나주의 작은 도시 워싱턴의 한 차고에서 22일(현지시간) 두 남성이 천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 재단과 재봉질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직접 만든 천 마스크를 애반스빌에 있는 디커너스헬스시스템에 전달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가운데 마스크와 의료기기 등이 턱없이 부족하자 지역사회 주민들이 천 마스크를 만들어 지역 병원과 양로원, 노숙자 쉼터 등에 보내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주요국 코로나 대책

국가	금액	GDP 대비	주요 내용
미국	2조 달러	9.3%	연준 대책 포함
중국	1조2000억 위안	1.2%	중소·영세 기업 사회보험료 부담 감면
독일	1500억 유로	4.2%	중소·영세 기업 자금 조달 지원
호주	2000억 호주달러	9.7%	10일간 대책 규모 10배로
영국	300억 파운드	1.3%	이와 별도로 기업지원에 GDP 대비 18% 신용공여
이탈리아	254억 유로	1.3%	매출 감소 기업 지원

경기부양 vs 빚잔치… 돈 풀기 ‘위험한 도박’

“부양 실패뎀 금리상승” 경계 목소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각국 정부가 유례없는 돈 풀기에 나서고 있다. 경제 충격파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빚더미가 몰고 올 후폭풍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3일 니혼게이사이신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당초 계획의 2배인 2조 달러, 국내총생산(GDP)의 10% 규모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능가하는 거액의 지원으로 고용과 기업을 보호하고 경제 충격이 장기화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이다.

유럽도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부양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독일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1500억 유로(약 200조5000억 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 중이다.

영국은 11일 300억 파운드(약 45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한 데 이어 GDP 대

비 15%에 해당하는 3300억 파운드 규모의 대출 보증에도 나서기로 했다.

중국도 중소·영세 기업의 도산 방지에 중점을 두고 최대 5개월간 사회보험료의 기업 부담분을 감면하기로 했다. UBS에 따르면 재정 투입 규모는 1조2000억 위안(약 214조 원)으로 추산된다.

일본은 GDP의 10%에 해당하는 약 56조8000억 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논의 중이다. 금융위기 당시 재정지출 규모가 15조4000억 엔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는 것이다.

각국이 코로나19 충격파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쏟아붓고 있지만 우려도 커진다. 전 세계 공적 채무 잔고는 70조 달러로 20년 만에 3.5배로 늘어난 상황이다. 경기부양책이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 재정 악화에 따른 금리 상승으로 세계 시장은 장기적으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다. 니혼게이사이신문은 “세계가 경기침체 공포 앞에 대규모 재정지출이라는 도박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전시 대통령’ 트럼프 “테슬라, 인공호흡기 만들어라”

방산·의료업체 마스크 제작 나서
제조업 총동원 의료물 생산 총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잡을 수 없이 빨라지면서 미국이 준전시 태세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3만 명을 돌파해 의료 체제에 과부하가 걸리자 보건과 무관한 민간 기업까지 의료물자 생산에 동원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자동차 업체들이 인공호흡기 생산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트럼프는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 테슬라가 인공호흡기와 기타 급속제품을 빨리 생산하기 위한 승인을 받고 있다”며 “자동차 경영자들은 힘을 내라. 그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라는 트윗을 올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자신을 ‘전시대통령’이라 부르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물자 생산을 늘리고자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만들어진 것으로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일이 발생했을 때 민간 부문에 관련 물자 생산을 확대하도록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환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병원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며 의료용품이 심각하게 부족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코로나19 환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마스크 등 의료물자와 장비, 검사키트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자동차 업계 외에 방산업체와 의료업체 등이 마스크 등 의료물자 생산에 돌입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주요 마스크 제조업체인 3M과 방산업체 허니웰이 N-95 마스크 생산량 증대에 나섰고, 의료업체 해인스도 보건용 마스크를 생산하기로 했다. 3M은 현재 미국에서 연간 4억 장의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는데, 향후 1년간 글로벌 생산능력을 30% 확대할 방침이다. 허니웰은 최근 N-95 마스크 생산량을 두 배 이상 늘렸다.

뉴욕에서는 패션 디자이너 크리스찬 시리아노가 마스크 제작을 시작했고, 버지니아에서는 수영복 회사 카를라 콜레토가 마스크 생산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다. 로스앤젤레스어패럴의 창립자이자 전 아메리칸어패럴 최고경영자(CEO)인 도브 차니는 자신의 의료 공장 대부분을 수술용 마스크와 병원 가운을 제조하는 데 동원했다.

변호선 기자 hsbun@

I·SEOUL·U
너와 나의 서울

우리 아이들
개학 전, 4월 5일까지는
**최대한 집에
머물러 주세요**

II

잠시 멈춤**시민 행동지침****┃ 모임 연기·취소 ┃****┃ 유증상 시 출근 금지 ┃****┃ 불필요한 외출 자제 ┃****┃ 2m 건강거리 유지 ┃****┃ 개인위생수칙 준수 ┃****┃ 매일 소독·환기 ┃**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일부, 유흥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 높은 시설,
4월 5일까지의 운영 중단 강력 권고

※ 불가피한 운영 시
업종별 준수사항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행정명령, 시설폐쇄,
구상권 청구 등 법적조치 적극대응

증상 의심 시, 병원 방문 전 문의 ☎ 관할 보건소 / 1339 / 120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국책은행發 ‘키코 배상’ 거부… 시중은행으로 번지나

산은 ‘손해사정의 부적절’ 이유
분조위 권고 불수락 사유서 제출

신한·하나 등 같은 논리 앞세워
배상안 거부 결정할 가능성 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금융감독원의 외환과생상품 키코(KIKO) 배상 권고안 수용 불가 입장을 내세우면서, 배상안 수락 여부를 고민 중인 신한·하나·대구은행 등 시중은행 사이에서도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배상안을 거부하면서 산업은행이 제출한 불수락 사유서상 논리를 시중은행들이 그대로 내세울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5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 배상안을 거부하면서 2장 분량의 불수락 사유서를 제출했다. 산업은행은 해당 사유서에 ‘손해사정의 부적절’을 명시하며 배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분조위가 배상을 권고한 기업은 키코 상품으로 오버헤지된 부분에서는 손실을 얻었으나, 헤지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분조위의 손해사정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금감원은 DLF 불완전판매처럼 키코 상품도 중소기업이 이해하기 힘든 금융공학적인 상품이었고, 상품에 대한 설명이 제한적으로 이뤄졌으므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 사건을 보면 손실이 커지기 전 분별 이익



을 본 고객이 있다. 산업은행이 키코에 적용한 원리를 똑같이 대입하면 그 DLF 고객도 손실 전에는 이익을 봤으므로 배상해 줄 필요가 없어야 한다. 따라서 산업은행의 불수락 사유서는 납득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이 제출한 불수락 사유서에는 손실 부분에 대한 주장 외에도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 또한 포함됐다.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적정한 거래제안서와 설명서를 제공했고, 해당 기업의 오버헤지 여부도 사전에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산업은행이 이 같은 논리를 내세우면서 분조위 권고안 수락 여부를 고심 중인 시중은행들도 배상안 거부 쪽으로 결론을 내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이사회 일정 연기와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이유로 통보 기한을 연기해 왔지만, 사실상 국책은행의 배상안 수락 여부와 법률적 논리를 참고하기 위한 시간 끌기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산은 키코 배상안 불수락 거부사유서	
손해사정의 부적절	오버헤지 부분은 손실, 헤지된 부분은 이익이므로 손해사정은 부적절
설명 의무 준수	적정한 거래제안서와 설명서를 제공
적합성 원칙 준수	기업의 오버헤지 여부 사전 검토 완료

신한, 하나, 대구은행은 이미 수락 여부 통보 기한을 3차례 연기해 다음 달 6일까지 최종 답변을 내놔야 한다. 하지만 키코 사태가 이미 10여 년이 흘러 법적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점, 분조위 배상 권고는 강제력이 없어 은행들이 수용하지 않으면 피해 기업이 배상을 받지 못하는 점 등은 시중은행이 권고안을 거절하도록 만드는 요인이다. 게다가 산업은행이 먼저 금감원에 불수락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나머지 은행들은 거부 의견을 밝히는 데 부담이 덜하다.

금감원이 피해금액과 배상비용을 바탕으로 산정한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 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받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키코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려고 하고 있다. 이사회 인원이 많지는 않아서 코로나19로 이사회가 무산될 가능성은 없고, 이달 말에는 이사회가 열려 수락 여부가 확실히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기자 contest@

키코 배상 거부한 산은

▶1면서 계속

하지만 산은과 금감원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피고 산업은행과의 키코 계약’ 문서에는 2007년 8월과 11월, 2008년 1월에 키코 계약으로 일성에 발생한 순손실이 각각 20억 원, 84억 원, 16억 원으로 총 120억 원이라고 명시돼 있다. 해당 문서는 2011년 서울중앙지법 1심 당시 법원에 제출된 자료의 일부다.

이외에 해당 법률 보고서는 산은과 일성 간 키코 계약은 분조위가 지정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원칙을 위반하지 않아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적합성 원칙과 관련해서는 산은이 거래시점에서 피해 기업의 오버헤지 여부를 사전

적으로 검토했고, 사후 오버헤지가 발생한 것은 일성이 타 은행들과 통화옵션계약을 추가로 체결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적절한 거래제안서와 상품설명서를 제공했고, 상품 내용을 유선으로 자세히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금감원 분조위는 일성과 타행 간 계약을 검토하지 않더라도 연간 통화옵션 계약 규모가 직전 연도 수출액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산은이 일성에 오버헤지로 인한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환율이 하락 또는 제한적으로 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던 점을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실이 없다는 산은의 결론은 손실을 수치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헤지 상품이라는 개념만 두고 제한적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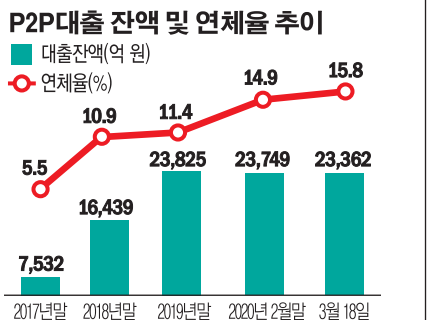
P2P대출 원금 손실 징후있었는데… 금융당국 ‘뒷북 투자경보’

중소업체 중심 연체율 15.8%
3개월 만에 4.4%p 증가

금융당국이 P2P 투자 소비자 경보를 내렸다. 지난해부터 P2P 대출 연체율은 증가해 15%를 넘겼다. 그러나 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 연체 문제가 계속 지적된 이후 소비자 주의보를 내려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2P대출 연체율 급증에 따른 소비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현재 P2P대출 규모는 총 2조4000억 원으로 2017년 8000억 원보다 세 배 증가했다. 연체율은 18일 기준으로 15.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 11.4%보다 4.4%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금융당국은 향후 대책과 관련해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와 불건전 영업 행위 또는 사기 사고는 현장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P2P 업계는 올해 초부터 잇따른 연체와 원금 손실로 불안 징후를 드러냈다. 당장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까지 연체율은 3.5%p 증가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0.5%p 오른 것과 비교하면 급등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달 부동산 대출 업계 1위 업체인 테라펀딩과 개인신용 대출 업체 8퍼센트 등 주요 P2P 업체는 원금 손실 사례를 냈다.



부동산 P2P 업체의 지난달 기준 연체율은 8.23%로 지난해 말 8.43%보다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이는 업체들이 연체채권을 매각 처리해 연체율을 낮춘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테라펀딩 관계자는 “최근 연체율이 오르는 건 맞지만, (연체율 관리를 위해) 연체된 채권을 매각하면 연체율이 낮아지고 부실률이 오른다”며 “테라펀딩은 부실율 0.3% 수준으로 관리 중”이라고 말했다. 테라펀딩은 최근 발생한 원금 손실과 상황지연 상품의 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직접 추심해 손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P2P 업계는 현행 연체율 기준 평가의 한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P2P 업체를 연체율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쉽다”며 “P2P금융의 목적은 중금리 시장 활성화인데 보통 10~20% 사이 금리를 취급한다. 금리 수준에 따른 연체와 부실을 고려한 대손율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화훼농가 힘내세요” 하나금융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고자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23일 밝혔다. 김정태(가운데) 하나금융 회장이 직원들에게 봄 기운 가득한 꽃을 선물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하나금융그룹

조용병 회장 “AI·빅데이터 CEO가 직접 관리하라”

신한금융, 디지털 후견인제 도입

조용병(사진)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디지털 핵심기술을 그룹사 CEO가 직접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룹사 CEO에게 AI 빅데이터 같은 담당 분야를 지정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경쟁적으로 임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회장은 18일 열린 그룹 경영회의에서 그룹의 DT(Digital Transformation)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CEO들의 디지털 리더십이 중요하며 ‘디지털 후견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에 꼭 필요한 디지털 핵심기술을 선정



해 후견 그룹사를 매칭하고 해당 그룹사의 CEO가 핵심 기술의 후견인이 되어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도록 지시했다.

특히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클라우드 같은 디지털 핵심기술과 헬스케어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담당 그룹사 CEO들이 직접 추진하도록 했다.

먼저 AI는 진옥동 신한은행 은행장이 맡기로 했다.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은 빅데이터 분야를 담당하기로 했다. 클라우드

분야는 신한금융투자, 블록체인은 오렌지 라이프,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분야는 신한생명이 각각 후견인으로 선정됐다.

다른 그룹사 CEO들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성과 창출을 위한 ‘디지털 후견인 제도’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모든 그룹사가 협업해 향후 원신한 차원의 디지털 협업 시너지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조 회장은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들 중 오직 3%만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신한금융그룹의 DT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략과 문화의 조화’, 그리고 ‘CEO들의 디지털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우리銀-신보, 코로나 피해 기업 4600억 지원

우리은행은 코로나19 피해기업, 혁신기업 및 수출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혁신성장·수출·일자리창출및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65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3700억 원과 ‘특별출연 협약보증’ 900억 원 등 총 46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유망서비스 및 지역대표 산업 영위기업 등이다. 우리은행은 보증료 지원금 20억 원을 재원으로 3년간 매년

0.2%포인트의 보증료를 기업에 지원한다.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혁신성장 선도기업, 수출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이다. 우리은행 특별출연금 45억 원을 재원으로 기업은 보증비용 100%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 대출도 최장 1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제도(C1, C2) 등을 활용해 더욱 낮은 금리의 대출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과의 협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삼성, 갤럭시 판매목표 하향… LG, 올 경영전략 재검토

세계 초긴축경영 돌입

▶1면서 계속

서부 푸네 인근에 자리 잡은 포스코의 자동차·가전용 용융 아연도금강판 공장은 생산 감축에 들어갔다. 코로나19로 인해 푸네 도심 등에도 봉쇄령이 내려져 물류에 타격이 생긴 데다 자동차 등 연관 산업의 생산 타격으로 제품을 공급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하면서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한 전략 마련에 돌입했다. 먼저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우리 기업들의 실적 하락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주요 제품 판매 목표치를 내리고,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 등도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 4분기 9400억 원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2000년 이후 유일한 분기 적자다. 특히 반도체 사업은 2008년 4분기(6900억 원)와 2009년 1분기(6700억

현대·기아차, 유연근무제 확대
SK, 최태원 회장 주재 대책회의
포스코, 시나리오별 비상체제

신제품 개발·신시장 개척 노력
시장지향형 기술·품질 혁신
수익성 위주 사업 적극 전개

원) 등 2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냈다. 삼성계열사 고위 관계자는 “시기의 문제일 뿐 계열사별로 조만간 연간 경영계획 수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연간 3억 대 회복을 목표로 삼았던 스마트폰 판매 목표를 내리고, TV 판매 목표치 역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 등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가 줄줄이 취소 혹은 연기되고 있는 탓이다. 삼성의 다른 계열사 역시 계획 수정에 나설 전망이다. 현대·기아차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

기업별 코로나19 비상대응체제				
				
연간 경영계획 수정 예정, 주요 제품 판매 목표치 및 매출·영업이익 예상치 하향 조정	재택근무 중단 및 유연근무제 확대	시나리오별 비상대응 체제 확립, 수익성 위주 사업 전개 및 비용 절감과 재무건전성 확보	계열사별 비상경영회의의 진행	주요 계열사별 연간 경영 전략 재검토

해 지난달 말부터 운영해온 재택근무제를 이날로 중단했다. 경영 상황이 간박해 더욱 적극적인 대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대신 부문별 협업을 강화해 사업 운영의 차질을 막는 동시에 출퇴근 시간을 최대한 분산하는 유연근무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 주재로 이번 주에 주요 계열사들이 참여하는 비상경영회의를 개최한다. 주력 계열사인 SK이노베이션의 1분기 적자가 예상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진 탓이다. SK이노베이션은 책임자들과 필수 인력들은 정상 출근하고 재택근무자들도 근무 시간을 연장하며 비상 상황에 대응하고 있

적 절감,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 고강도 대책 실행을 통해 비용 절감과 재무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아울러 미래 성장 신제품 개발과 함께 신시장 개척은 물론 시장지향형 기술혁신과 전사적 품질혁신 등 수익성 위주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중국발 철강 재고 상승, 수출 차질, 철광석 가격 상승 등으로 부진한 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반토막이 예상된다. 앞서 포스코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도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는 등 큰 타격을 입은 바 있다. 2009년 개별기준 영업이익은 3조1480억 원으로 1년 만에 51.9% 급감했다. 재계 관계자는 “부품 공급 차질에 따른 생산 위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동반 수요 감소로 인한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하리피를 줄라매는 것은 물론이고, 경영 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일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구조조정 칼바람 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제선에 이어 국내선까지 중단키로 한 이스타항공이 25일로 예정돼 있는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게 됐다. 향후 구조조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중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는 이날 사내게시판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과 힘을 모아 정부의 긴급운영자금 지원 요청 등 특단의 대책을 찾아봤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부득이하게 이달 25일 예정됐던 급여 지급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달에도 유동성 부족으로 임직원의 2월 급여를 40%만 지급했다. 최 대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노선

오늘부터 한달동안 ‘셋다운’
최중구 “급여 지급 어려워…
유휴인력 조정작업 불가피”

감축을 비롯한 단축근무, 무급휴직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최선을 다했음에도 기본적인 운영자금 확보도 어려운 현실”이라며 “지금의 위기 상황을 견뎌내기 위해 더 강도 높은 자구노력에 돌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스타항공은 24일부터 한 달간 국내선을 포함한 모든 노선의 운항을 중단하며 셋다운에 돌입했으며, 4월에는 최소한의 운영 인원을 제외한 모든 인원

은 휴직에 들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기재를 조기 반납해 유동량 악화의 속도를 조절해 시장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최 대표는 “유휴 인력에 대한 조정 작업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노사협의회를 통해 대상과 방식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구조조정의 가능성도 내비쳤다. 특히 그는 “현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손실 규모를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이른 시간에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매각 성공과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져 미지급 급여도 성실히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유미 기자 jscs508@

〈현대차 수석부회장〉 책임경영·주주가치 제고 나선 정의선

현대차 등 190억 자사주 매입
현대차 지분 1.86%로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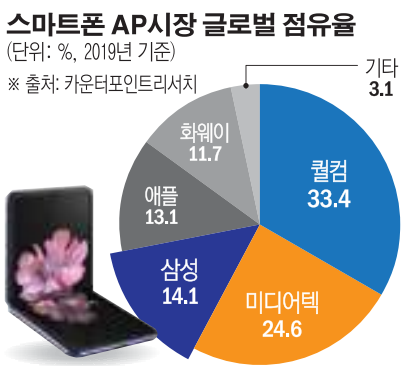
날 7만2552주를 매입하면서 0.08%를 취득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에 따른 금융 및 주식시장의 불안정 상황에서 회사를 책임감 있게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활동”이라며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임원진의 위기 극복을 위한 자발적 주식 매입과 함께 정의선 부회장 등 경영진의 이번 활동이 미래 기업가치 향상 및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준형 기자 junior@

정의선〈사진〉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23일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주식을 약 190억 원어치 매입했다. 이날 정 부회장이 매입한 주식은 현대차 13만9000주, 현대모비스 7만2552주다. 매입 단가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각각 6만8435원, 13만789원이다. 이로써 정 수석부회장의 현대차 지분은 이전(501만7443주)보다 0.05%(13만9000주) 늘어난 1.86%(515만6443주)가 됐다. 현대모비스의 경우 이전까지 지분이 없었으나 이

삼성전자, 애플 제치고 스마트폰 AP 점유율 3위

14.1%로 전년 대비 2.2%P ↑
유럽·남미시장서 높은 점유율
퀄컴·미디어텍 1·2위 지력

삼성전자가 지난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며 애플을 제치고 3위에 올랐다. 23일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의 분기별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스마트폰 AP 시장에서 상위 5개 업체 중 삼성과 화웨이의 점유율은 상승한 반면 퀄컴, 미디어텍, 애플 등 다른 업체는 전년 대비 점유율이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전체 점유율이 2018년 11.8%에서 지난해 14.1%로 2.2%포인트



상승했다. 퀄컴은 33.4%의 점유율 보이며 1위 자리를 지켰지만, 전년 대비 점유율이 감소했다. 2위를 차지한 미디어텍은 중동 아프리카, 인도 및 동남아시아 등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였다. 삼성은 유럽과 라틴아메리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고, 그 외 지역에서도 전년 대비 시장 점유율이 상승했다. 한편 화웨이의 경우 중국 시장에서 큰 상승을 보이며 전년 대비 점유율이 상승했지만, 중국 외 지역에서는 전반적인 하락을 보였다. 올해 AP 시장은 기존의 주요 경쟁 요소와 함께 글로벌 5G(5세대 이동 통신) 산업 성장 본격화로 인한 5G 통합칩도 주요 경쟁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5G 통합칩이란 5G 이동통신을 지원하는 ‘5G 통신 모뎀칩’과 고성능 ‘모바일 AP’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5G 통합칩은 스마트폰 내 공간 활용 자유도가 높아져 설계 편의성이 좋아지고, 하나의 칩 내에서 통신과 데이터 연산이 이뤄져 전력 절감에도 효과가 있다. 송영록 기자 syr@



기아차, 2021년형 쏘울·쏘울EV 출시

트림별로 주행가능 거리 차별화
공기청정 모드 등 편의사양 강화

기아자동차가 23일 ‘2021년형 쏘울’과 ‘쏘울 EV’를 출시하고 판매에 돌입했다. 신형 쏘울은 전방충돌방지보조(FCA), 차로이탈방지보조(LKA), 운전자주의 경고(DAW), 하이빔 보조(HBA) 등 첨단 주행 안전 기술을 기본으로 갖춰 운전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원격 시동 스마트키를 모든 트림에 기본으로 적용했다. 기아차는 신형 쏘울 EV를 출시하면서 전기차 구매 고객의 운행 성향을 분석해 트림별로 최적화된 배터리를 엮었다. 프레

스티지 트림에는 복합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50km인 도심형 배터리를 넣어 경제성을 중시하는 고객의 수요에 대응했고, 노블레스 트림에는 복합 1회 충전 주행거리가 386km인 기본형 배터리를 얹어 장거리 운전 고객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외에도 △후석 승객 알람 △공기청정 모드 △동승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등 다양한 편의 사양을 넣어 상품성을 강화했다. 신형 쏘울의 판매가격은 △프레스티지 1910만 원 △노블레스 2101만 원 △노블레스 스페셜 2293만 원이다. 신형 쏘울 EV의 가격은 서울시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받으면 △프레스티지 2993만 원 △노블레스 3564만 원에 구매할 수 있다. 유창욱 기자 woogi@

LG전자, 美컨슈머리포트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건조기’

23일 LG전자는 미국 소비자매체 컨슈머리포트가 자사 건조기를 전기식·가스식 부문 모두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건조기 브랜드(Most reliable clothes dryer brands)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뢰성 평가는 2009~2019년 구매된 건조기 8만9000여 대에 대한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컨슈머리포트는 “오래 가는 건조기를 찾는다면 이 리스트를 확인해야 한다”며

“LG 건조기는 14개 가스식 건조기 브랜드 가운데 유일하게 ‘최우수’(excellent)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LG전자는 컨슈머리포트 건조기 종합 평가에서도 전기식 건조기 부문 1~6위, 가스식 건조기 부문 1~10위를 석권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에너지공 환급 30만 원+삼성전자 포인트 70만 원〉

高효율 TV·냉장고 100만 원 혜택... 온라인 마케팅



23일 모델들이 삼성전자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에 맞춰 소비자들이 고효율 가전제품을 경제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프로모션(promotion)을 확대하며 온라인 가전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가전 온라인 구매가 오프라인을 추월하면서 마케팅 무게 중심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날부터 올해 연말까지 냉장고, 김치냉장고, TV, 에어컨, 세탁기, 공기청정기 등 10개 품목의 으뜸효율 제품을 구매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제품 구매 비용의 10%를 환급해준다. 개인별 최대 한도는 30만 원이다.

환급을 원하는 고객은 내년 1월 15일까지 구매 대상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첨부해 으뜸효율 환급사업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1500억 원 규모의 사업 예산 한도가 소진되면 종료된다.

삼성전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에 맞춰 소비자가 삼성전자의 고효율 가전제품을 보다 경제적으로 구매할 수 있

삼성전자, 최대 70만 원 포인트
LG, 프라엘 할인·캐시백 행사



도록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삼성전자가 보유한 으뜸효율가전 환급 대상 대표 모델은 총 151개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비용 한도인 30만 원까지 포함하면 소비자는 최대 1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성디지털프라자에서 셰프컬렉션 냉장고(모델명 RF10R9945M5)나 무풍에어컨 갤러리(AF19TX978MZR) 홈멀티 모델을 구매할 경우, 환급금 외에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70만 원 상당의 특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크리스탈 UHD 75형(KU75UT8070FXKR)을 구매할 경우 15만

특별 포인트가 제공된다.

삼성전자는 이번 으뜸효율가전 환급 해당 품목은 아니지만,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건조기 '삼성 그랑데 AI'에 대해 12만 원 상당의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으뜸효율 가전 대상 모델인 그랑데 AI 세탁기와 함께 구매하면 환급금 포함 최대 3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G전자는 홈 뷰티기기 'LG 프라엘' 구매 고객 대상으로 전용 액세서리, 캐시백 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이달 말까지 LG 프라엘 초음파 클렌저(모델명 BCK1A)를 구매하는 고객 가운데 선착순 600명에게 원하는 영문 문구를 새긴 프라엘 미니백을 제공한다. 캐시백 행사도 진행한다. 고객이 LG 프라엘 6종 세트 구매 시 최대 80만 원, 단품 구매 시에는 최대 20만 원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LG전자는 온라인 판매 전용으로 제품을 구성한 'LG 프라엘 플러스 V'도 선보였다. LG 프라엘 플러스 V는 더마 LED 마스크, 토털 타이트 업 케어, 갈바닉 이온 부스터 등 3종으로 구성됐다. 거치대, 전용 파우치 등 액세서리를 제외하고 본체, 컨트롤러, 충전기 등 꼭 필요한 물품들만 포함해 가격을 낮췄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GfK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가전시장 온라인 구매 비중은 올 초 44%에서 2월 셋째 주에는 65%까지 치솟은 것으로 집계됐다.

권태성 기자 tskwon@

붉은 대게살과 소스의 황금비율 몬스터크랩 바디



진~한
대게딱지장에
비벼! 비벼!

매콤한
초고추장에
비벼! 비벼!

한성
기업

HANSUNG
ENTERPRISE

"크라미"와 "Crami", "몬스터크랩"과 "Monster Crab"은 한성기업(주)의 등록상표입니다.
©2019. HANSUNG Enterprise

항공유 마진 폭락... 정유사 '설상가상'

70% 떨어져 16년 만에 최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실상 마비된 항공업의 여파가 정유업까지 번지고 있다.

정유사 매출의 10%가량을 차지했던 항공유 수요가 급감했을 뿐 아니라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크랙마진마저 1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며 항공업에 이어 정유업에까지 코로나19발(發)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크랙마진은 항공유, 휘발유 등 고부가가치 제품과 그 원료인 중유의 가격 차이를 뜻한다.

23일 S&P 글로벌 플라츠에 따르면 최근 두바이 스와프 기준 아시아 항공유 및 등유 크랙마진은 지난주 기준 배럴당 3.71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연초 15달러대에 머물렀던 것보다 70% 이상 하락한 수치로, 2003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두바이 스와프는 캐시 두바이(두바이 현물 물량에 대한 벤치마크 가격)에서 거래되는 현물이 2개월 후에 선적되기까지 현물가격의 변동성을 고려해 나온 지표다.

싱가포르 항공유·등유 크랙마진 역시 이날 스왑(현물) 기준 배럴당 7.2달러로 전주 대비 2.2달러 하락했으며, 전년 대비로는 6달러 가까이 떨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항공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등유 가격도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많이 떨어져서 항공유 크랙마진 역시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분간 정유사의 항공유 부문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4월 국제 항공유 수요가 전년 동월 대비 40% 줄어들고, 국내 역시 5분의 1 토막 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결되는 1개월 레그 크랙마진 또한 배럴당 -22.4달러를 기록했다. 그동안 항공유에서 안정적 수익을 얻던 정유사로서는 기본적인 소득원을 잃은 셈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되더라도 여객 수요는 가장 늦게 회복될 것이란 점도 부담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여객 수요 부진에 따라 항공산업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유사의 항공유 부문의 반등 또한 코로나19 사태 수습의 마지막 단계에서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항공유 수요 성장이 대폭 하락할 것이란 관측도 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의 항공 여객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2025년경이 되면 지금보다 성장률이 상당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이노션 '지난해 최고 자동차 광고회사' 선정

이노션 월드와이드의 미국 법인(IWA)이 미국 내 유명 광고·마케팅 전문지인 미디어포스트(MediaPost)가 주관하는 '자동차 마케팅 어워즈(Marketing Automotive Awards)'에서 '2019 최고의 자동차 광고회사(Automotive Agency of the Year)'로 선정됐다.

23일 이노션에 따르면 '최고의 자동차 광고회사' 상은 매년 미디어포스트와 광고

·마케팅 전문가 심사위원단이 미국 시장 내 자동차 광고주를 보유한 광고 에이전시들의 활동과 캠페인 성과 등을 평가해 가장 큰 활약을 펼친 회사에 수여하는 상이다. 현대차를 대상으로 광고·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IWA는 현대차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판매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유창욱 기자 woogi@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 주거 희망, 우리가 선물합니다



임차보증금의 최대 80% (중소기업 취업청년 가구의 전세임대보증금은 최대100%) / 단, 일반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최대70%

중소기업 취업청년가구	신혼가구	2재년 이상가구	일반가구
최대 1억원 연 1.2% 금리	최대 2억원 (수도권 기준) 최저 연 1.0%~2.1% 금리	최대 2억 2천만원 (수도권 기준) 최저 연 1.0%~2.4% 금리	최대 1억 2천만원 (수도권 기준) 최저 연 1.0%~2.9% 금리

2020 새봄맞이 버팀목전세대출

경품 EVENT

이벤트 기간 : 2020.03.02(월) ~ 05.29(금)

- **참여방법** : 기간 중 버팀목전세대출 실행고객 (자동응모)
- **경품** : 삼성TV 65인치 (1명) / 삼성 에어컨드레서 (3명) / 애플워치5 (5명) / 휴스툼 무선 물걸레청소기 (11명) /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000명)
- **당첨자발표** : 6월 중 우리은행 홈페이지 공지

▶ 상기내용은 2020. 3. 11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정부시책, 기금 운용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관리대상자이거나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일이 경과한 경우, 연체이자 부과 및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 이벤트 기간 중 대출받고 2020년 5월 29일까지 대출계좌 유지 고객에 한하며 마케팅 미동의 및 SMS 수신 거절시 응모에서 제외됩니다. ▶ 경품은 우리은행에 등록된 고객님의 자택주소지 및 휴대폰 번호로 배송되며, 연락처 정보 오류 등으로 반송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니 등록된 고객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품 당첨 고객에 한해 고객정보가 업체에 제공될 수 있으며, 경품 발송 이후 고객정보는 파기됩니다. ▶ 게재면적 제한으로 상기상품의 필요 공지사항을 전부 표시할 수 없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거나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센터 : 1599-0800, 1599-5000, 1588-5000
2020.03.13 준법감시인-0599 심의필 (유효기간 : 2021.3.31)

세계 첫 5G 상용화 일등공신… ‘Mr.5G’ 황창규 퇴장

“KT는 ‘5G·AI’로 글로벌 1등 통신사로 거듭날 것입니다.”

KT 민영화 이후 첫 6년 연임을 완주한 황창규 회장이 임기 내내 강조하던 경영철학이자 목표다. 공격적 구조조정으로 조직 슬림화를 이루고, 정치적 외풍과 아현국사 화재 사건에도 6만여 명의 그룹사 직원을 이끈 수장으로 술한 우여곡절을 넘긴 황 회장이 23일 이임식을 끝으로 공식석상에서 내려왔다.

황 회장은 아현국사 화재와 채용청탁 의혹 등 임기 내내 경영 위기에 맞닥뜨렸지만 ‘5G·AI’를 전면에 내세운 경영혁신과 글로벌 행보로 KT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황 회장은 이날 별도 공식 행사 없이 주요 임원진과 오찬을 하는 것으로 이임식을 대신했다. 황 회장의 공식 임기는 30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까지지만 이날 이임으로 사실상 자신의 모든 직무를 마감했다.

황 회장은 역대 KT 회장 중 6년 연임 임기를 온전히 채운 유일한 CEO로 이름을 남겼다.

KT 민영화 이후 첫 6년 완주
‘AI 컴퍼니 도약’ 청사진 제시

아현국사 화재·채용청탁 의혹
8300명 구조조정 ‘아픈 상처’

삼성전자 기술총괄 사장을 맡았던 황 회장은 2014년 KT 회장으로 취임한 후 ‘5G 상용화’를 독심 있게 밀어붙였다. 2015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5G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제시했고, 2019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5G 상용화를 설파하며 ‘미스터, 5G’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이어 2018년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세계 최초로 5G 시범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우리나라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황 회장은 AI(인공지능) 사업에도 공을 들였다. KT는 AI 사업을 확대하고 통신



황창규 KT 회장이 서울 종로구 KT스퀘어에서 열린 KT그룹 신년 결의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를 넘어 AI 기술을 선도하는 ‘AI 컴퍼니’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다. AI 스피커 ‘기가지니’와 AI 호텔, AI 고객센터 등이 모두 황 회장의 선전지명에서 나온 성과라 할 수 있다.

황 회장은 임기 중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구조조정 단행과 정치 외풍,

아현국사 화재 등으로 위기를 맞기도 했다. 황 회장은 2014년 취임 후 KT 역사상 최대 규모인 8300여 명의 명예퇴직을 단행하며 노동조합과 갈등을 겪었고, 56개 계열사를 50여 개로 줄이는 등 계열사 구조조정까지 강행했다. 이어 KT 전·현직 임원이 정치권에 KT 법인 자금으로 4억

3000만여 원을 불법 후원하고, 국회의원 취업 청탁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검경 수사까지 받았다. 2018년 11월 발생한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는 금전적 손실 외에도 ‘국가 1등 통신사업자’라는 명예에 오점을 남기기도 했다.

황 회장은 이임식을 통해 “KT의 미래, 먹거리, 그리고 KT 정신을 제대로 세운 CEO로 기억되고 싶다”며 “지난 6년간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준 임직원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만들어 온 성과 그 이상을 뛰어넘어 135년 역사의 KT그룹을 글로벌 1등으로 올려 달라”고 강조했다.

30일 열리는 KT 정기 주주총회부터는 30년 넘게 ‘KT맨’으로 일한 구현모 사장이 황 회장의 배턴을 넘겨 받게 된다. 지속적인 주가 하락과 경쟁사들과의 출혈경쟁 등 여전히 산적한 과제로 벼랑끝에 서 있는 KT가 ‘구현모호’라는 새로운 선장을 만나 어떻게 협로를 헤쳐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훈 기자 yes@

SKT, 국가고객만족도 23년 연속 1위

5G·AI 등 뉴 ICT 기술 선도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 추진
매달 고객가치혁신 회의 열어

5G시대에도 고객 선택은 SK텔레콤인 것으로 조사됐다.

SK텔레콤이 한국생산성본부가 선정하는 2020년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이동통신 부문 23년 연속 1위의 위업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23년 연속 1위는 NCSI 조사 대상 전 산업 부문을 통틀어 최장 기록이다.

1998년 처음 국내 도입돼 매년 시행 중인 NCSI는 기업의 상품·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직접 평가한 만족 수준을 측정, 계량화한 지표로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고객만족지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SK텔레콤은 5G·AI와 같은 New ICT 기술을 선도하며, 끊임없이 고객 가치를 혁신 중이다. 그 결과 NCSI 조사 시작 이래 한 해도 빠놓지 않고 고객으로부터 최고의 이동통신 사업자임을 인정받고 있다. 올해 NCSI결과는 본격화된 5G 서비스 이용 고객의 만족도가 반영된 결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



SK텔레콤은 지난해 4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고 5G 기반의 다양한 상품 서비스를 선보이며 고객 가치를 혁신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세계 최초로 5G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했고, 올해 1월 말 기준 가입자 220만 명을 넘어섰다.

SK텔레콤은 귀여운 동물을 AR로 언제든지 만나볼 수 있는 ‘Jump AR’, 어디서든 롤(LoL) 경기장에 있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는 ‘Jump VR’ 등을 통해 고객이 최첨단 기술을 보다 쉽고 친숙하게 접하도록 함으로써 AR·VR 대중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자사의 ICT 기술 및 유통 인프라를 개방·공유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행복커뮤니티’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행복커뮤니티’는 ICT 기술을 통해 홀몸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사진>’, 지점 및 대리점에서 노인, 어린이 대상 맞춤형 ICT 활용 교육을 제공하는 ‘스마트스쿨’, 신진 작가를 발굴해 이들에게 작품 전시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갤러리’ 등으로 구성된다.

SK텔레콤은 1997년부터 매달 CEO를 비롯한 주요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고객가치혁신 회의’를 열어 고객 경험을 진단하고,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내 평가단’을 운영하며 회사 서비스 출시 전후로 고객 관점에서 검증을 강화하고 불편한 점을 찾아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청각장애 고객이 원활한 통신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료 통화연결음 서비스 ‘손누리랑’ 역시 고객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2019년 10월 출시된 손누리랑 서비스는 청각장애 고객에게 전화를 건 발신자에게 “이 전화는 듣는 것이 불편하신 고객님의 휴대전화입니다. 문자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라는 음성 안내를 제공하며 고객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재훈 기자 yes@



“잉글리시에그, U+tv에서 보세요” LG유플러스는 영유아 프리미엄 영어교육 브랜드 ‘잉글리시에그’와 제휴를 맺고 영유아 전용 IPTV 플랫폼 ‘U+tv 아이돌나라’의 국내외 프리미엄 영어학습 콘텐츠를 독점 제공한다. 사진제공 LG유플러스

총선 앞두고 댓글이력 공개·실점 중단 네이버·카카오 ‘악플과의 전쟁’

‘선거 특집 페이지’ 오픈

국내 포털업체가 내달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댓글이력을 공개하고 실점을 중단하며, 후보자와 관련한 자동완성 검색어도 제한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각 총선 특별 페이지를 오픈하며 선거 정보를 전달한다.

우선 네이버는 이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특집 페이지’를 오픈했다. 총선 특집 페이지를 통해 선거 기간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총선과 관련한 뉴스, 여론조사 결과 등을 제공한다. 또 선거와 관련된 정보가 가장 빠르게 전달되는 뉴스 콘텐츠는 인공지능 기반의 ‘주요 뉴스’ 영역과 함께, ‘언론사 PICK(픽)’ 코너가 신설됐다. 언론사 픽 코너는 각 언론사가 총선과 관련해 가장 중요하다고 직접 선택(PICK)한 기사로만 구성된다.

카카오 역시 17일 총선 특집 페이지를 열고 선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의 다음 포털 총선평판 페이지는 뉴스와 지역구별 뉴스, 여론조사, 포토 등 4

가지 메인 메뉴로 구성된다. 뉴스는 다음 뉴스 제휴 언론사 총선 관련 뉴스를 키워드 기반으로 클러스터링해 최신 순으로 배열한다.

양사는 총선 기간 실시간 검색어와 댓글에 일부 제한을 둔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내달 2일부터는 실명 인증을 완료한 이용자에 한해 선거와 관련한 뉴스에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네이버는 19일부터 댓글 작성자의 이전 댓글까지 함께 보여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와 후보자 연관 검색어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이는 지금까지 선거 기간 조작 논란 등의 화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포털업체는 지금까지 선거 기간 댓글을 활용한 조작 사건의 중심에서 논란에 시달렸다. 심지어 조작 논란으로 인해 양사의 대표이사가 출석해 직접 해명하는 상황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 사이에서 실시간 검색어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포털업체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논란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조성준 기자 tati@

제지업체, 폐지 공급과잉 해소 팔견었다

국산 폐지 사용량 확대·재생펄프 생산 수출… 수입은 대폭 줄여

국산 폐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제지업체가 폐지 수입을 자제하는 등 방안 모색에 나섰다.

국내 폐지 업체는 중국이 2018년부터 한국산 폐지 수입을 제한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은 자국 폐지업체 보호, 환경보호 등을 명분으로 폐지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국내 업체들은 수출길이 막혀 폐지 공급 초과와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3일 한국제지연합회는 국산 대체가 가능한 일부 저가 혼합폐지류 수입을 중단하

고, 국내 수거량이 부족하거나 국산으로 대체가 곤란한 품목에 한해 수입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지연합회에 따르면 일부 제지 업체는 이미 지난해 연말부터 수입을 중단하거나 필수 품목 위주로 최소화하고 있다. 올해 수입 폐지 사용량은 지난해보다 19만 톤이 감소해 16%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제지업체는 국산 폐지로 재생펄프를 생산해 수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제지회사에서 종이제품 대신에 폐골판지를 재생펄

프로 만들어 수출하는 방식이다. 국산 폐지 적체 해소를 위해 일부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에도 제지업체는 국산 폐지 적체 해소를 위해 6개사에서 2만여 톤의 국산 폐골판지를 선매입해 비축했다.

한국제지연합회는 국산 폐지 공급과잉 해소 방안이 추진되면 국산 폐지 사용량이 전년보다 약 47만 톤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제지업체는 지난해 980만 톤의 폐지를 재활용했는데 그중 국산 폐지는 88%인 859만 톤을 사용했다. 12%는 국내 회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출용 종이제품의 품질 확보 등을 위해 수입 폐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셀트리온그룹 회장〉

서정진 “코로나19 항체후보 확보… 7월 임상 돌입”

온라인 기자간담회 열고 “1차 후보군 300종 확보” 밝혀
5월 초 대량 생산 세포주 개발 방침… 일정 2개월 앞당겨
“진단키트 내달 시제품 생산… 5월 임상 완료 후 유럽 인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에 나선 셀트리온이 앞으로 4개월 내 인체 투여를 위한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변이된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항체 개발도 동시에 진행한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23일 오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항체 개발에 가장 중요한 항체후보 확보 절차를 완료했으며, 이르면 7월 중순까지 인체 임상이 가능하도록 모든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은 서울대병원 등 의료기관을 통해 코로나19 회복환자의 혈액을 확보하고 항원에 결합하는 300종의 항체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일반적으로 3~6개월이 걸리는 과정을 약 3주 만에 완료한 것으로, 향후 과정보다 최대한 단축해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회사는 항체 1차 후보군 선정 완료 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이용한 시험관 내 중화능 검증법을 진행하면서 이미 2차 후보 항체군 선별작업에 돌입했다. 중화능 검증법은 질병관리본부와 충북대학교와 협업해 진행하며, 이 검증법을 통해 선정된 후보 항체들은 동물 모델에서의 치료 효능, 항체 고유 특성 평가 등 일련의 추가적인 검증과정을 거쳐 최종 항체 선정으로 이어진다. 늦어도 5월 초부터는 대량 생산 세포주 개발할 방침이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총

5개 업체가 코로나19 중화항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진행 속도는 셀트리온이 가장 빠르다는 설명이다.

서 회장은 “우리의 장점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한 달에 최대 100만 명에게 투여할 수 있는 분량을 생산할 수 있어 최단 시간 안에 많은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플루엔자 항체 개발을 통해 바이러스를 60% 정도 소멸시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항바이러스제와 병용 투여를 통해 80% 이상의 바이러스가 소멸하면 나머지는 환자의 자연 치유 능력으로 완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글로벌 임상 계획을 병행하면서 치료제의 신속한 해외 공급을 준비할 예정이다. 유사시에는 위탁생산(CMO) 파트너를 가용해 물량을 공급한다.

특히 셀트리온은 더 많은 회복환자 혈액 샘플을 추가로 확보해 코로나19 바이러스 뿐 아니라 사스, 더 나아가 일반 감기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중화시키는 ‘슈퍼 항체’를 선별한다. 이는 변이된 코로나 바이러스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서 회장은 “지금까지 6명분의 혈액자원을 확보했고, 다음 주 1명분을 추가 확보할 전망”이라며 “7명분을 확보하면 변이에도 적용 가능한 차세대 항체 개발에 착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치료제 개발과 함께 신속 진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23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 진척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셀트리온

단키트를 만들고 있다. 현재 보급되는 신속진단키트는 다양한 종류의 코로나바이러스가 공통적으로 보유한 N단백질을 검출하는 원리인 데 반해,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제품은 코로나19에만 존재하는 S단백질을 검출하는 방식으로 표준 진단법인 RT-PCR에 근접한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15~20분이면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전문업체와 협업을 통해 4월 말 시제품 생산을 완료하고 5월 말까지 임상을 마칠 예정이다. 한국은 물론 유럽 수출용 CE 인증과 미국 인증을 신청해 전 세계에 보급한다.

서 회장은 “임상 결과는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학회나 논문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며 “상업성을 따지지 않고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euna@

봄 특수 사라진 골프웨어

골프장 북적이는데 코로나19 영향 매장은 ‘썰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골프장은 연일 호황이지만 골프웨어업계는 울상이다. 골프웨어업계는 따뜻했던 지난겨울 날씨에 힘입어 비수기였던 겨울에도 매출 호조를 누렸지만, 정작 성수기인 봄 시즌에는 오프라인 매장 방문객이 줄면서 실적 악화를 우려하는 모양새다.

야외 운동인 골프는 겨울이 비수기로 꼽히지만, 올겨울은 영상 기온이 이어지고 눈도 거의 오지 않아 골프를 즐기려는 날들의 연속이었다. 겨울 골프를 즐기는 소비자가 많아지자 골프웨어·용품 매출은 예년과 달리 큰 폭으로 성장했고 이에 골프웨어업계는 3월 본격적인 봄 시즌을 앞두고 예년보다 신상품을 일찍 선보이며 특수를 기대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변수 탓에 골프웨어업계는 기대에 못 미치는 신상품 판매 실적을 기록 중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유통업체의 골프대전은 예년만 못했다. 특히 이마트는 1월 초부터 2월 24일까지 골프용품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해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해 2월 27일부터 시작된 골프 대전 행사에서 신상품 클럽을 대거 선보였지만, 전국 38개 점포에서 2월 2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진행한 ‘2020년 신

상품 클럽 제안’ 행사 매출은 전년보다 9.2% 줄었다.

현대백화점도 올겨울 골프 관련 고객이 늘자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골프웨어·골프용품 특별전’을 진행했는데 행사 매출은 전년 대비 13.8% 줄었다. ‘NO.1 골프 페어’ 행사를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진행한 롯데백화점 역시 전년도 행사보다 매출이 40% 빠졌다.

업계 관계자는 “올겨울 날씨에 따뜻해 겨울 골프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 골프용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가 많고, 코로나19로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손님이 줄면서 성수기인 봄인데도 매출이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로 골프웨어·용품을 새로 장만하는 소비자는 줄었지만, 골프장은 연일 호황이다. 외출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됐지만 골프는 야외 운동인 데다 독립적인 공간에서 즐길 수 있다는 장점 덕에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시즌 호황을 누리고 있다.

골프장 관계자는 “코로나19에도 매출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시즌인 만큼 현재 예약은 비는 자리 없이 꽉 찬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피코크 만난 펭수

이마트가 26일부터 ‘피코크×펭수 컬래버 상품’ 8종 판매에 나선다. 특히 자이언트 펭귄이라는 펭수의 정체성을 고려해 대용량 상품 중심으로 기획했다. 대표적으로 ‘펭수 자이언트 초콜릿(1만5980원, 850g)’은 중량이 일반 초콜릿의 10배에 달하는 대용량 초콜릿으로 싱가포르산 코코아분말을 넣었다. 이마트는 젊은 고객에게 인기가 많은 ‘펭수’와의 콜라보를 통해 젊은 고객 유치에 나서기 위해 이번 상품을 기획했다. 사진제공 이마트

한국콜마 ‘마스크에 안 묻는 화장품’ 4종 출시

쿠션·선크림 등 마찰 영향 줄여

‘마스크에 안 묻는’ 화장품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두 달 가까이 이어지며 마스크 착용은 일상이 됐다. 메이크업 후 마스크를 착용하는 여성들은 화장품이 마스크에 묻고 메이크업이 무너져 내리는 불편함을 호소했는데 한국콜마가 이를 반영해 ‘마스크에 안 묻는’ 화장품을 개발해 선보였다.

글로벌 화장품·의약품 ODM전문제조기업 한국콜마는 최근 마스크 착용으로 발생하는 여성들의 메이크업 고민을 해결해 줄 메이크업 4종을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콜마가 새롭게 선보이는 쿠션, 톤업 선크림, 팩트, 파우더 코팅 립 등 메이크업 4종은 마스크 착용 시 화장품이 마스크에 묻어나는 현상과 메이크업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개발됐다. 이를 위해 외부 마찰로부터의 영향

을 최소화하고 지속력을 높이는 기술을 이 제품들에 적용했다.

먼저 유·수분을 잘 튕겨내는 성질이 강한 코팅파우더를 사용해 메이크업이 무너져 내리는 현상을 해결했다.

여기에 고정력이 강한 필름 형성제도 적용해 외부 자극으로 메이크업이 무너지는 현상을 한 번 더 확실히 막아냈다. 필름 형성제는 화장품이 피부에 잘 밀착될 수 있도록 외부 자극이나 마찰에 메이크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마스크에 화장품이 묻어나는 일 없이 메이크업을 지속할 수 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장시간의 마스크 착용으로 메이크업 시 불편한 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비자 요구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할 제품을 개발하게 됐다”며 “마스크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어 소비자 니즈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미선 기자 only@

계산대에 안전 라인… 매장 외 직원 재택근무 연장

유통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확산

유통업체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힘을 쏟고 있다.

고객과의 물리적 거리를 떨어뜨리고, 내부적으로는 재택 근무와 유연 근무제 등을 통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다. 상품이 생산자에서 소비자, 수요자에 도달하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대면 접촉이 이뤄지는 유통업에선 특히 거리두기 캠페인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일부 지역에서 실시 중이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스타벅스 대구와 경북 지역 일부 매장에 시범 도입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을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전국 매장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스타벅스는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으로 계산대 앞에 안전 라인 스티커를 부착해 주문 시 고객과 파트너의 안전 거리를 확보한다. 이어 한시적인 조치로 매장에서 텀블러 등 개인 다화용컵 이용 서비스를 중지한다. 음료는 일회용 컵에 담아 제공된다.

이 외에 위생 안전 에티켓으로 ‘주문 시 마스크 착용 부탁’, ‘사용한 종이빨대 쓰레기통에 버리기’ 등을 제시하며 직원과 고객의 감염 위험을 줄이고 있다.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재택 근무도 계속되고 있다. 전 직원의 재택 근무가 여의치 않은 일부 업체는 유연 근무제와 교대 근무 등을 이어가고 있다.



스타벅스는 계산대 앞에 안전 라인 스티커를 부착해 주문 시 고객과 파트너의 안전 거리를 확보하고 있다. 사진제공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지난달 27일부터 재택근무에 돌입한 CJ푸드빌은 8일까지였던 재택근무 기간을 이달 27일까지 연장했다.

CJ푸드빌은 푸레쥬르와 빙스, 계절밥상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CJ그룹의 외식 사업 계열사다. 현재 매장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을 제외한 전 직원이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홈쇼핑 업체도 방송을 위한 필수인력을 제외한 전 인원의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재택근무에 돌입한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은 이번

주까지 현 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CJ오쇼핑은 다음 달 3일까지 재택근무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매주 상황에 따라 한 주씩 (재택근무가) 연장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직원의 재택근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백화점, 면세점 업계도 근무 형태 변화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다. 현대백화점은 2일부터 31일까지 부분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임신부의 경우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한편, 일반 직원들은 대중교통 혼잡시간을 피해 출근하는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11일부로 재택근무를 종료한 롯데면세점도 임신부 등 일부 임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달 3일까지 재택근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부 업체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재해석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GS25는 19일 서울 서초구를 통해 취약 계층에 200만 원 상당의 식품을 기부했다. GS25가 전달한 구호식품은 구청의 사회복지 담당자를 통해 이달 중 서초구 내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GS25는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취약 계층을 위한 나눔에 동참하게 됐다”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부활동 자제 일상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식생활 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연 수익률 10%’ ELS에도 시장은 ‘싸늘’

이전 발행 상품 원금 손실 우려에
투자자 ELS 가입률 낮아져
청약 한도 못채워 발행 취소 늘어
공모·사모ELS 발행금액도 축소

주가연계증권(ELS)이 높은 수익률에도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앞서 발행한 상품들의 원금손실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연 수익률 10%에도 줄줄이 발행 취소 = 최근 증권사들은 앞다퉈 높은 금리의 ELS 상품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대다수 상품의 쿠폰금리가 연 3~5%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오른 수준이다. 23일 기준 신한금융투자는 연 쿠폰금리

신한금융투자 주요 ELS 수익률, 청약 경쟁률

상품명	최대 가능 수익률(연)	당사 경쟁률
공모ELS 18927호(원금비보장)	6.20%	0
공모ELS 18928호(원금비보장)	10%	0.01
공모ELS 18930호(원금비보장)	10.20%	0
공모ELS 18926호(원금비보장)	6%	0
공모ELS 18942호(원금비보장)	10%	0.21
공모ELS USD18943호(원금비보장)	7%	0

10%의 공모ELS 18942호의 청약을 진행하고 있다. 3년 만기 스텝다운형이며, 기초자산은 코스피200·유로스톡스50·홍콩 항셱지수 등으로 설정됐다. 손실 기준선을 뜻하는 녹인배리어(Knock-in barrier)는 50%다. 즉 기초자산 지수가 일정 규모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연 10%의 쿠폰

금리를 받고, 6개월마다 평가해 조기상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어 지난주 청약을 마감한 유안타 ELS 4496회의 연 쿠폰금리는 9.2%로 책정됐다. 삼성 ELS24147회(8.6%), 유안타 ELS4497회(7.5%), NH ELS19345회(7.0%) 등의 수익률도 높은 편에 속한다. 높은 수익률 제시에도 청약 한도를 채우지 못해 발행 자체가 취소되는 상품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주 NH 19325회, 19342회와 한국 13116회, 하나금융투자 ELS 10685호 등이 최저 청약 한도 미달로 발행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이 진행 중인 상품의 경쟁률 역시 낮다. 신한금융투자에서 판매 중인 공모ELS의 청약 경쟁률은 모두 0%대를 기록하고 있다. 23일 기준 청약 경쟁률인 가장 높은

상품은 쿠폰금리 10%를 내세운 18942회차로, 0.21%를 기록하고 있다. 아예 청약되지 않은 ELS 상품도 수두룩하다. ◇‘중위험 중수익’은 옛말 vs 지금이 투자 적기? = 앞서 ELS는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홍보돼 고객들에게 팔렸지만, 최근 원금손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마저도 옛말이 됐다. 23일 기준 국내 주요 증권사에서 고객들에게 원금손실 가능성을 공지한 ELS는 약 503개, 잔액은 약 6247억 원으로 집계됐다.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발행 규모 역시 쪼그라들고 있다. 2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주(3월 16일~22일) 발행된 공모·사모ELS의 총발행금액은 995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3월 9일~15일) 1조3377억 원 대비 3427억 원가량 줄

어든 수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통상 ELS투자자는 조기상환을 목적으로 다시 ELS에 재투자하는 전략을 이용했다”며 “최근 추종지수 급락으로 조기 상환에 실패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돼 높은 금리와 낮은 녹인배리어에도 자금 유입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역설적으로 최근 ELS투자 매력이크어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증권사 PB센터 관계자는 “최근 추종 지수가 고점 대비 급락한 상황에서 현재 지수를 기준으로 50~60% 수준의 녹인배리어를 설정하기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더 낮다”면서도 “최근에 유입된 고객들 역시 손실을 보고 있어 신규 상품 추천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정희 기자 ljh@

팬데믹 확산에... 상장사, 현금 확보 ‘사활’

“현금 많아야 장기불황 방어 유리”
이화산업 770억 토지·건물 처분
세니트 등 9곳도 자산 매각 나서
삼성전자 현금 26兆 보유 ‘최다’

팬데믹 확산 공포로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다수의 상장사들이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풍부한 유동성이 장기 불황 방어에 유리한 만큼 투자자들의 시선도 집중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20일 이화산업은 종속회사인 영화기업이 770억 원 규모의 토지와 건물을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이 밖에도 세니트와 영흥철강, 파버나인, 부산주공, 아모레퍼시픽그룹, EG, 경방, LG하우시스 등 9곳이 현금 자산 확보를 위해 자산을 매각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상장사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최근 한 달간 코스피지수는

상장사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현황
(단위: 억 원, 지난해 3분기 기준)

종목명	금액
삼성전자	26조6049
기업은행	12조3672
SK	9조2208
현대차	9조2089
우리금융지주	8조3888

※ 출처: 에프엔가이드

28.66% 급락했다. 일부 항공사나 해운사의 경우 운항이 중단되면서 운영자금이 끊기는 등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현금 흐름이 막힐 경우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경우 배당금을 증대하거나 적극적인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를 방어할 수 있다”며 “또 신사업 진행이나 투자를 바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이 풍부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가장 높은 기업은 삼

성전지다. 총 26조6050억 원을 보유 중이다. 이어 기업은행(12조3673억 원), SK(9조2208억 원), 현대차(9조2090억 원), 우리금융지주(8조3888억 원), LG전자(4조7989억 원), 기아차(2조2722억 원) 순으로 현금이 많았다. 특히 현금 보유금이 높은 기업은 코로나19 여파에도 대규모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8조4532억 원), 현대차(8083억 원), 우리금융지주(5056억 원), 현대모비스(3750억 원), 기업은행(3259억 원), SK(2650억 원), LG전자(1222억 원) 등이 배당을 시행한다. 이태훈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취약 업종인 항공업과 유가 급락에 취약한 에너지 기업의 경우 자금 조달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미국 보잉사의 경우 은행 대출 잔액을 전부 인출하는 등 현금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 신용 경색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공모 리츠 시장도 ‘코로나19’ 영향권

증시 변동성 확대에 신규 상장 차질 우려
공모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장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리츠 시장 위축과 증시 변동성 확대 등으로 신규 상장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제이알투자운용△마스텐투자운용△이지스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코람코자산신탁 등에서 리츠 상장을 예고했다. 앞서 상장한 공모 리츠(7개)만큼의 리츠가 신규 상장을 준비하는 셈이다. 운용사별로 보면 제이알투자운용은 국내에선 처음으로 해외 자산(벨기에 브뤼셀 파인앤스타워)을 기초자산으로 한 ‘제이알글로벌 위탁관리리츠’를 상장할 계획이다. 목표 공모 규모도 3000억~4000억 원으로 가장 크다. 또 이지스자산운용은 ‘이지스밸류플러스위탁관리리츠’(태평로 빌딩)와 ‘이지스 레지던스 위탁관리리츠’(민간임대주택) 등 두 개 리츠를 상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경우 지난달 광고 상업시설에 투자하는 ‘맵스리츠1호’의 국토교통부 인가를 취득하기도 했다. 당초 몸집이 큰 공모 리츠가 대거 상장 계획을 밝히면서 공모 리츠 시장 확대가 점쳐지기도 했다. 상장키로 했던 리츠 중 공모 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경우가 6개 가량으로, 이들이 상장하면 시장 규모도 2조 원 이상으로 몸집을 불리게 된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여파에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까지 둔화하자 공모 리츠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리츠 지수인 ‘FTSE EPRA Nareit Global Reits’ 지수는 20일(현지 시간) 기준 연초 이후 -38.09% 하락한 1260.54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미국(-39.99%), 아시아·태평양(-35.98%), 유럽(-35.31%) 순으로 내림폭이 컸다. 이다원 기자 leedw@

www.douzone.com

인공지능 ERP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다!

더존 iCUBE가 더욱 스마트해졌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기계학습 방법론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

기업의 업무는 이제 국내 유일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에 맡기십시오.

회사 밖에서 급한 임무가 생기면 어떡하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도 실시간 업무 진행이 가능한 스마트워크

회계처리 쉬운 방법 없을까?

거래내역 자동수집, 자동분계,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데이터 오류까지 자동 검증

우리 회사 경영 상황을 분석할 수 있을까?

ERP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업에서 필요한 형태로 수정할 수 있는 분석툴 제공

믿을 만한 거래처인가?

거래처 신용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기업용 ERP

- 회계관리
- 인사·급여관리
- 영업관리
- 무역관리
- 구매·재재관리
- 생산관리
- 와주관리
- 서비스관리
- 경영정보관리

더존 iCUBE
더존 iCUBE Cloud Edition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용 ERP

- 예산관리
- 자산관리
- 후원자관리
- 회계관리
- 인사·급여관리
- 경영정보관리
- 영업관리
- 구매·재재관리
- 생산관리

더존 iCUBE G20
더존 iCUBE G20 Cloud Edition

더존 ERP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다네이터와 상담하세요! 문의 1688-5000

〈대전·대구·광주·부산〉

지방 고가아파트 ‘보유세 폭탄’…‘대대광부’ 집값 꺾이나

대전 ‘크로바’ 164㎡ 258만원 늘고
부산 ‘삼익비치’ 131㎡ 103만원 ↑

‘고가 아파트 타깃’ 공사가 핀셋 인상
코로나 여파 거래 실종에 보유세 부담
‘집값 연쇄 하락 기폭제’ 우려 커져
작은 집 갈아타는 ‘다운사이징’ 늘 듯

대전 서구 둔산동 크로바아파트는 대전 집값을 이끄는 ‘대장주’ 아파트로 꼽힌다. 둔산 신도심 한가운데 있는 데다 학원과 와도 가까운 덕분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크로바아파트 전용면적 164㎡형의 예정 공시가격으로 11억 5500만 원을 매겼다. 1년 전(7억3000만 원)보다 58.2% 올랐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시세 상승률(56.5%)까지 제쳤다. 공시가격에 따라 매겨지는 아파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증가율은 더 가파르다. 지난해 195만 원가량이던 크로바아파트 전용 164㎡형 보유세는 올해 453만 원으로 늘 것으로 추산된다. 공시가격이 9억

아파트 (전용면적)	대전 서구 둔산동 크로바아파트(164㎡)	부산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131㎡)	대구 수성구 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123㎡)	광주 남구 봉선동 쌍용스윗닷홈(155㎡)
2019년 공시가격	730,000,000	606,000,000	888,000,000	872,000,000
2020년 공시가격안	1,155,000,000	883,000,000	949,000,000	968,000,000
상승폭	58.2%	45.7%	6.0%	11.0%
2019년 보유세	1,959,600	1,498,320	2,547,360	2,487,840
2020년 보유세 추정	4,532,040	2,528,760	2,964,792	3,109,344
상승폭	131.3%	68.8%	16.4%	25.0%

※ 출처: 대전시

대전 둔산동 아파트 단지

원을 넘으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게 보유세 부담을 크게 늘렸다.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 여파가 대전과 부산, 대구 등 지방 대도시까지 미치고 있다. 지역 집값을 견인하는 고가 아파트가 핵심 타깃이다. 지난해 달아올랐던 지방 주택시장이 뒷걸음질치기 시작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타운’ 상황도 대전 크로바아파트와 비슷하다. 이 아파트 전용 131㎡형 공시가격은 지난해 6억600만 원에서 올해 8억8300만 원으로 45.7% 상향될 예정이다. 이대로면 이 아

파트 소유자의 보유세는 68.8%(149만 원→252만 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삼익비치타운은 부산 재건축 아파트 시장을 주도하는 대어(大魚)로 꼽힌다.

대구 아파트시장에서 대장주로 불리는 수성구 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에선 전용 129㎡형 공시가격이 9억4900만 원으로 오른다. 지난해(8억8800만 원)보다 466.9% 상승했다. 올해부터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 이 아파트 예상 보유세는 296만 원. 지난해(254만 원)보다 16.4% 늘어난다.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서울은 물론 지방 고가 아파트가

지도 핵심 타깃으로 삼았다. 집값이 오른 만큼 공시가격을 올려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부동산 관련 조세의 형평성을 확립하겠다는 게 명분이었다. 지방 ‘대장아파트’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지역 평균 변동률과 차이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구의 경우 평균 공시가격은 0.01% 떨어졌지만, 대장아파트들이 몰린 시세 9억~12억 원, 12억~15억 원대 구간에선 오히려 각각 3.5%, 3.0% 상승했다. 평균 공시가격이 0.1% 오른 부산에서도 시세 9억~12억 원, 12억~15억 원대 아파트들을 놓고 보면 공시가격이 각기 19.6%, 15.1% 뛰었다.

부동산 시장에선 지역 대장아파트를 노린 ‘공시가격 핀셋 인상’을 집값 상승세는 누르면서도 직접적인 조세 저항은 최소화하려는 정부 포석으로 해석한다. 지역에선 보유세 부담에 대장아파트 매맷값이 떨어지면 중·저가 아파트로 가격 하락 현상이 확산할 수 있다고도 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해서 확산하면 집값 하락 압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세계 경기가 얼어붙으면 부동산시장도 함께 가라앉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일반적으로 보유세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지금은 다르게 봐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실물 경기가 가라앉은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 증가는 집값 하락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부장은 “특히 보유세 부담 여력이 적은 고령 1주택자 가운데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갈아타는, 즉 주택을 ‘다운사이징’하려는 사람도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지방 큰손 ‘서울아파트 쇼핑’ 뚝

정부 대출규제로 2개월 연속 감소세
2월 거래비중 24.9%서 23.8%로 줄어

서울 아파트를 사들이던 지방 ‘큰손’들의 원정 투자 건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 등의 조치로 다주택 투자 수요가 크게 위축된 때문으로 보인다.

23일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밖 외지인들의 서울 아파트 매입 건수는 지난달 2274건을 기록했다. 1월(2621건) 대비 347건 줄었다. 서울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월 24.9%에서 23.8%로 감소했다.

지방 매입자들의 서울 아파트 상경 투자가 지난해 12월 3687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체 거래(1만 4117건)의 26.1%를 차지했던 점을 감안하면 두 달 연속 감소세다.

지방 큰손들의 서울 아파트 투자 건수가 이처럼 줄어든 건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

제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대출이 전면 금지된 데다 올해 1월부터 9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전세대출 보증을 완전히 막는 규제까지 시행됐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외지인의 아파트 매입이 가장 집중된 곳은 25개 자치구 중 구로구(184건)와 강서(141건)·영등포(136건)·송파(118건)·강동구(115건) 등이다. 특히 지난 3개월간 추이에서 외지인 아파트 매입이 2개월 연속 증가한 곳은 구로구가 유일하다.

실제 이 기간 외지인들의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 매입 건수는 지난해 12월 886건에서 1월 547건, 2월 380건으로 계속 줄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월별 외지인 매입 거래 중 강남4구 아파트 거래 비중도 24%→20.8%→16.7%로 꾸준히 줄었다. 반대로 구로구 아파트 매입 비중은 4.25%→6.21%→8.09%로 늘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I have a Dream – 걸을 수 있는 행복

“그동안 얼마나 고맙고 미안했었는데”

파곤하고 힘들텐데도 양보해주고 도와주는 젊은이들한테 정말 미안하고 고맙았어요.

이젠 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아프지 않고 혼자 걸을 수 있다는 소박한 바람이 이루어졌으니까.

당신이 힘을 준 이 무름으로
또 한번 세상에 힘이 될 꿈을 꾸고 있습니다.

노인의료나눔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퇴행성관절염의 고통을 참고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무릎인공관절수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걷게 하는 꿈과 희망을 나누어주세요.

지원상담·후원문의: 1661-6595 / www.ok6595.or.kr

재단법인 Senior Healthcare Sharing Foundation
노인의료나눔재단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노인 의료 복지서비스 확대 지원 예정
무릎 인공관절수술 외 노인성 질환 수술 지원
본인부담금에서 비급여항목까지 확대 지원
노인 관련 의료 보조기구 지원

사회적 나눔을 함께 할 의료 관련 기업을 찾습니다
요실금, 치질, 치과, 전립선 등 노인질환 관련 병의원 및 기업
보청기, 신발, 건강보조식품 등 노인을 위한 다양한 보조기구 지원
의료기구 마케팅 테스트 대상 활용 가능

협력 문의
문의전화 : 02-597-6599
노인의료나눔재단

●주최: 재단법인 Senior Healthcare Sharing Foundation
노인의료나눔재단

●후원: 보건복지부 사랑의열매

〈기업 PR〉

설계·상품개발부터 안전관리까지 빅데이터 활용

대림산업, 디지털 혁신으로 주거문화 바꾼다

건설업계 첫 소유공동주택 BIM 적용

대림산업이 설계·상품 개발부터 안전 관리까지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스마트 건설을 구현하는 한편, IT 기술과 첨단 건설 공법을 결합해 업무 효율성과 원가혁신, 생산성까지 한꺼번에 잡겠다는 복안이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건설사 가운데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센터를 활용해 주거 상품인 씨투 하우스(C2 HOUSE)를 개발했다. 1200만 명 이상의 국내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세대별 취향과 생활 패턴 변화를 분석해 주거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했다. C2 HOUSE의 가장 큰 특징은 내력 벽체를 최소화해 개인의 성향과 개성에 맞춰 다양한 평면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림산업은 지역 고객들의 니즈를 분석



대림산업이 개발한 혁신 평면 플랫폼 ‘씨투 하우스’의 거실 디자인. 사진제공 대림산업

하기 위해서 지역 밀착형 사전 마케팅을 실시했으며, 사전 마케팅 기간 동안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고객들의 니즈를 설계에도 적극 반영했다. 특히 올해부터 건설업계 최초로 모든 공동주택의 기획 및 설계단계부터 건설정보모델링(BIM)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대림산업 측은 “설계 도면의 오차를 없앨 수 있다면 실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오차와 하자, 공기 지연까지 획기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이슨’ 상표 독점 사용 안된다”

특허법원 “다이슨 모방 中 제품 인식”… 무선청소기 수입 업체 루미엘 상고 취하

영국의 가전 브랜드 ‘다이슨’ (dyson)과 중국 영문명 ‘차이나’ (China)의 합성어인 ‘차이슨’ 상표권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차이슨’ 상표권자인 무선청소기 수입업체 루미엘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루미엘은 또 다른 무선청소기 수입업체 아이룸을 상대로 2심인 특허법원에 권리범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 패소한 바 있다. 루미엘의 상고 취하로 특허법원의 판결은 확정됐다.

루미엘은 2017년 2월 ‘차이슨’ 상표를 출원했으며, 이듬해 7월 특허청에 등록됐다. 지정 상품은 가정용 진공청소기, 로봇 청소기, 전기청소기 등이다.

이듬해 11월 아이룸은 특허심판원에 루미엘을 상대로 확인 대상 표장(iRoom 차이슨 무선청소기)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해당 표장이 루미엘이 등록한 ‘차이슨’ 상표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4월 “확인 대상 표장의 ‘차이슨’ 부분은 사용 상품인 무선청소기와 관련해 중국에서 제조된 무선청소기, 중국 짝퉁 다이슨 등으로 쉽게 관념된다”며 “상품의 품질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이므로 등록상표의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아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아이룸의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루미엘은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권리심판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루미엘은 “확인 대상 표장의 ‘차이슨’ 부분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반 수요자가 단순히 ‘차이슨’ 부분을 보고 직접적으로 다이슨의 무선청소기 형태를 본떠 만든 가성비 좋은 청소기 등으로 직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특허법원 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확인 대상 표장은 ‘차이슨’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아 특허심판원의 심결

은 적법하다”며 루미엘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언론사 등이 다이슨의 무선청소기를 모방한 중국 제품을 소개하면서 차이슨으로 호칭하거나 약칭해 왔다”며 “더욱이 차이슨은 루미엘이 창작한 표장이 아니라 다수의 무선청소기 수입 판매자들이 다이슨 무선청소기를 모방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알려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차이슨은 상품의 출처 표시가 아니라 다이슨의 무선청소기를 모방한 중국 제품이란 의미로 인식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사용 상품의 산지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직감하게 한다”며 “나아가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 하는 표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 공익상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에는 적당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김종용 기자 deep@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됐습니다



새 옷 입는 서울광장

서울시는 서울광장의 묵은 잔디를 걷어내고 24일까지 이틀 동안 새 잔디를 심는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 전문인력 200여 명이 서울광장에 잔디를 깔고 있다.
연합뉴스

“형령 고소 않겠다 합의했어도 처벌 가능”

대법, 부제소 조건 사임 외국계 기업 前 대표 집유 확정

재직 시절 형령·배임 혐의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사임했다. 더라도 공소제기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기업 전 대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6년부터 2015년까지 가구·건축하드웨어 업체 대표로 재직했던 A 씨는 회사 소유의 공사비 11억2500만 원을 유용해 서조구 자택을 지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회사 소유의 서울사옥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회사 소유의 가구, 비품 등 1억2000만 원 상당을 빼돌리기도 했다. 또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부인의 급여 명목으로 1억8860만 원, 자신과 임원의 성과급, 보험비 지급 등 명목으로 3억여 원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배신한 점, 배임·횡령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회사의 손해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죄

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A 씨는 회사가 ‘부제소 합의’를 어기고 고소한 것이라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015년 독일 본사로부터 ‘미승인 부동산 매수’, ‘신의성실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통보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 씨와 회사는 대표이사 재직 기간 A 씨의 범행과 관련해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소는 수사 단서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다”며 “형령·배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검사는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정수천 기자 int1000@

文 대통령 “국민 분노 공감… ‘n번방’ 회원 전원 조사 필요”

디지털 성범죄 근절책 마련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게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이 강력하게 구축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에도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려는 국민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통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영상물 삭제뿐 아니라 법률 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

한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회견과 만나 “디지털 성범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익명성에 숨으면 잡히지 않을 거라는 범죄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익명성에 숨으면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범죄자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신병 확보를 하지 못한 다른 주요 가해자도 경찰이 끝까지 추적해서 신병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일환 기자 whan@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3월호 발매

시니어 공감 매거진
BRAVO
Monthly Magazine
My Life
2020. 03 VOL.03

나이가 무상 의미하는
하루의 미소

영양 부동산 전문
‘오자 품’ 마곡지구
발전과 스포츠 나이팅과
조화로운 삶

정신 5주년 기념
주목적
신앙 이념

경주 송가리마을에서 떠나는
유물전 감상여행

“안녕이 올거릴 이라는
좋은 사람과 함께해서요”
익숙하고 편안한
국민가수 김상희

슈퍼리더의 숨겨진
화려함을 발견하다

하루장의 품격을 짓다
Noble House

COVERSTORY 하우스의 품격을 짓다

PART1. 1인 가구 vs 다세대 가구 - 따로 또 같이, 가구별 하우스링

PART2. 시니어 하우스를 가다 - 품격을 담은 노후 보금자리

PART3. 집에 대한 고민들 - 늘어나는 세금 부담 “남겨라!”

PART4. 노후 하우스 함께 짓다 - “나이 들면 한집에서우리끼리 살아볼까?”

PART5. 집의 가치를 높여주는 인테리어 - 클래식한 분위기로 공간을 꾸미다

더불어 숨
다산은 시를 짓고
초익은 그림을 그렸다

고수열전

‘악육강식’ 믿을 거 없다

동화 작가 권정생(1937~2007) 선생에겐 남이 없었다. 사람은 물론, 보잘것없는 식프기물이나 강아지 동조차 그애겐 남이 아니었다. 모든 존재를 남으로 바라보지 않았기에, 남의 일이라는 것도 없었다. 남의 일도 내 일로 알아 남의 이름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가슴이 깊었던 어느 여공님, 법정에 타들어가는 배를 바라보던 그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저것들이 얼마나 목마를까?” 그런 중얼거림이 새 나왔고, 이런 눈, 이런 연민, 이런 삶의 태도가 어떻게 가능할까.

신라보가 만난 사람

**“재직 인생은
애초와 함께”
아구 감독
유승민**

**현역에선 남만이 싫어하는 건
안 하는 편입니다
한지 같은 여자
국민가수 김상희의 삶과 사랑**

**읽은 것을 알리고
정의롭게 살다
변호사
박연태**

Living & Home **모던하고 심플하게, 홈 오피스 및 아이템**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어떤지 뭘든 도전하고, 배우고 싶은 욕구가 뭉뚱 솟는다. 따뜻한 봄을 맞아 책장의 묵은 먼지도 털고 책상도 정리하면서 마음을 다져보자. 편안한 느낌을 주는 우드나 베이직 톤, 또는 블랙 포인트 아이템으로 모던하면서도 심플하게 홈 오피스를 꾸며보면 어떨까?

생생 부동산 현장 **주택은 괜찮는데, 상가는 ‘글썸’..**

서울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이른바 바·용·성 못자리에 핫한 지역이 있다. 김서구 마곡지구다. 마곡지구는 지금까지 드러난 호재에 최근 또 다른 호재가 겹치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마곡지구가 품은 부동산 호재와 투자 가능성을 들여다봤다.

시니어 밥상
홈메이드 사찰음식+
암과 성인병 예방하는
브로콜리 활용 레시피

투자 고수와 놀자
정성진 KB국민은행 양재PB센터 팀장
신홍국 투자로
저금리 넘는다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여권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담임 목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하면 벌금 300만원”

박원순 시장 “집단 감염 우려 커”
4월 5일까지 집회금지명령

박원순 시장이 중단 권고를 무시하고 일요일 예배를 강행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명령을 내렸다. 또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 검역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장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 주말 진행된 교회 현장 예배 실태 점검 결과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집단감염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4월 5일까지 집회금지명령을 행정 발동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예배 강행 의사를 밝힌 2209곳에 공무원 5224명을 투입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박 시장은 “발열체크, 교회 방역, 신도 간 거리 유지, 식사제공 금지,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



박원순 서울시장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23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한 목회자가 취재자를 방해하고 있다.

치 등 7대 예방수칙 준수 여부를 봤더니 282개 교회에서 미이행 사항 384건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중 383건은 현장에서 공무원이 현장지도를 했고 교회에서도 즉시 시정했다”며 “그러나 전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는 2000여 명이 밀집하고도 일

부 신도의 경우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참석자 명단도 작성하지 않았을 뿐더러 즉각 시정 요구에도 오히려 현장점검을 나온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예배) 집회에 참여하는 개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 접촉자 등에 대한 치료비와 방역비를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유럽, 미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을 감안해 해외 입국자에 대한 특별검역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해외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 해외 유입원을 통한 지역 사회 감염이라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며 “검역 대상을 유럽에 국한하지 않고 전 세계 입국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유럽 입국자뿐만 아니라 미국, 필리핀 입국자 명단까지 정부에 요청해 자가격리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단기 체류자도 외출을 금지시키고 2주간 자율 격리를 권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자치구 소식

종로구, 낡은 간판 일제 정비

서울 종로구는 연말까지 업소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낡고 주인 없는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종로구는 5월 8일까지 집중 정비기간을 정해 대로변과 이면도로에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한다.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 대상은 폐업이나 업소 변경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 노후·훼손 상태가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위험 간판’이다.

한편 종로구는 올해 창신동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글 디자인과 친환경 LED조명을 활용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을 진행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낡고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해 도시 미관을 증진시키고 주



간판 정비 전(왼쪽)과 정비 후 모습.

민 보행 안전을 지켜나가고자 한다”며 “간판 정비와 함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서대문구, 침수방지 시설 설치

서울 서대문구가 여름철 국지성 집중 호우로 인한 수해에 대비하기 위해 관내 저지대 주택과 상가 등에 침수방지 시설을

무료 설치한다.

23일 서대문구에 따르면 올해 물막이판, 옥내역류방지기, 수중펌프를 설치하는데 2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희망 주민이나 상인이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안전지수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현장 확인 후 6월까지 침수방지 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안전지수과(02-330-1425)로 문의하면 된다.

설경진 기자 skj78@

강남구, 구민 활력 프로그램

서울 강남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 중인 구민들을 위해 다양한 온라인 주민 활력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강남구는 개학 연기로 외부 활동이 제한

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K-POP 스타들의 댄스 배우기’ 동영상상을 유튜브 등을 통해 25일 제작·배포한다. 아이돌그룹이 재능 기부로 동영상 제작에 참여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3분 영상 공모전’도 다음달 3일까지 개최한다. 주제는 ‘방콕 챌린지 나는야 감독’, ‘우리 가족 소통 일기’ 등 두 가지로 영화·다큐·뉴스·드라마 등 자유 형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복지시설 휴관으로 무료해진 노인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법도 소개된다.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은 27일부터 국선도·라인댄스 등 실내에서 할 수 있는 10가지 홈트레이닝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논현노인종합복지관은 카카오톡을 활용해 ‘트로트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은 안부 확인 등을 담은 영상을 SNS에 공유하는 ‘미미워 챌린지’를 진행한다.

김진희 기자 jh6945@

서울시 공공시설 앱으로 간편 가입

거리두기 일환 비대면 서비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서울도서관 등 22개 시·구립 도서관과 25개 문화체육시설에 대해 ‘비대면 간편가입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비대면 간편가입 서비스’는 서울시 공공시설 732곳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회원카드 애플리케이션(앱)인 서울시민카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종전에는 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분증 등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도서관의 경우 서울거주 시민 여부만 확인되면 모바일 도서관대출증(회원증)이 발급된다.

간편 인증 후 도서관 회원이 되면 모바일 도서관대출증을 통해 집에서 도서관 대출, 전자책, 도서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구립도서관과 문화체육 시설 47곳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 나머지 구립도서관 전체 509곳, 하반기에는 문화체육시설 93곳을 더한 총 649곳으로 비대면 간편가입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곽종빈 서울시자치행정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 멈춤’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민을 위해 비대면 간편가입 서비스를 구축하게 됐다”며 “비대면 서비스가 연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당신의 소중한 파일을 노리는
랜섬웨어

알려지지 않은 최신 랜섬웨어

바이로봇 Anti-Ransomware

보안취약점을 통해 유입되는 랜섬웨어

바이로봇 APT Shield 2.0

이미 알려진 랜섬웨어 동작 시

바이로봇 7.0

하우리, 바이로봇으로 차단하세요!

수년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한 순간에 암호화 시켜버리는 랜섬웨어. 대한민국 대표백신, 바이로봇 솔루션으로 랜섬웨어를 차단하고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세요.

관심해어 정보센터 www.hauri.co.kr

(주) 하우리 | 서울시 종로구 을지로 238 (에일빌딩) 6층 | 대표전화 02-3676-1100

HAURI

마트 장보기서 코로나 선별검사까지... 차 안에서 OK



김준형의
오토 인사이트

‘드라이브 스루’의 모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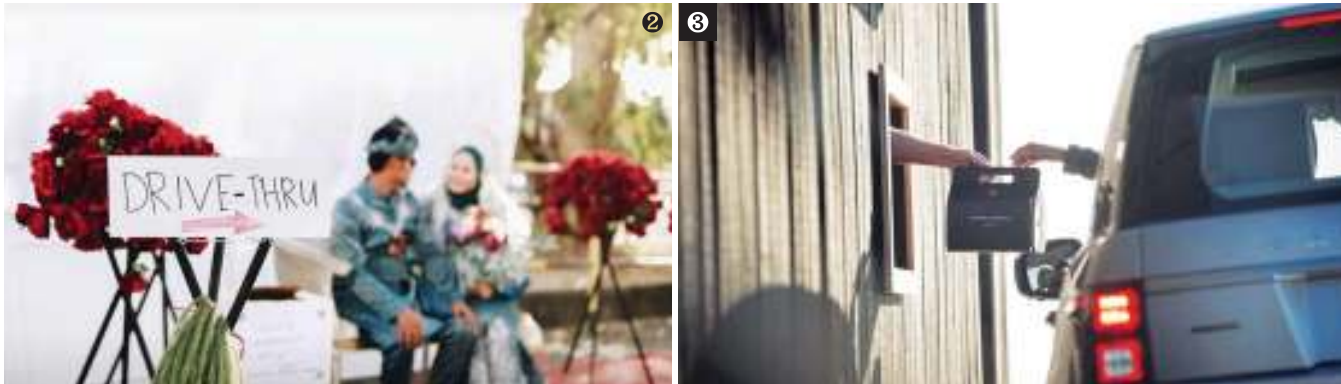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방식의 소품문화가 우리 사회 곳곳으로 확산 중이다.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e setting)’의 대표적 수단 가운데 하나다. 최소한의 접촉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가는 방법이다.

전쟁이 과학과 중공업 발전을 일궈낸 것처럼, 코로나19 사태가 생산이나 유통, 나아가 소통의 혁신을 불러오는 촉매가 된 셈이다.

그렇다면 드라이브 스루는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작했을까.

◇자동차를 활용한 2차대전 아전에서 시작 =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드라이브 스루의 본격적인 시작은 2차대전이었다. 2차대전에서 자동차는 탈것이라기보다 하



①경기 고양시에서 운영 중인 ‘고양 안심 카 선별진료소’ 모습. ②말레이시아의 한 커플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결혼식을 진행해 화제를 모았다. ③‘드라이브 스루’는 자동차 산업 발달과 패스트푸드 문화가 접목된 유통 방식이다.

2차대전 군수물자 수송서 유래 美 패스트푸드와 맞물려 대중화 국내에선 1980년대 속속 도입

나의 군용 장비로 여겨졌다.

당시 자동차를 이용한 독일군의 전격 기습 작전은 전쟁의 양상을 바꿔놓았다. 1차 대전 때 ‘말(馬)’이 해냈던 역할을 자동차가 대신하면서 빠른 이송과 보급이 전쟁의 주도권을 결정짓는 것이다.

아전에서 전투를 마치고 돌아온 수송차에 순서대로 군수물자를 옮겨 싣는 방식으로 시작했다. 당시 야전수송사령부는 여러 곳에 필요한 물건을 내려주고 재빨리 보급 부대로 되돌아와야 했다.

이때 가장 먼저 내려야 할 군수물자와 가장 나중에 내려야 할 물자를 선별했다. 보급차가 부대 안으로 되돌아오면 서둘러 준비했던 보급품을 순서대로 차에 싣었다. BBC는 “최초의 드라이브 스루”라고 표현했다.

◇자동차 보급확대와 패스트푸드 문화가 맞물려 = 드라이브 스루는 자동차 산업과 패스트푸드 문화가 발달한 선진국 시장에서 먼저 시작했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차를 세우고 매장에 들어가 음식을 사서 나오는 번거로

움을 줄일 수 있어 인기를 끌었다.

나이가 햄버거와 샌드위치, 커피 등 한 손으로 음식을 쥐고 먹을 수 있는 식문화도 드라이브 스루 문화 확산을 부추겼다. 끼니 때마다 ‘질첩반상’을 차려야 했던 우리나라와 거리가 멀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1980년대 우리나라에도 패스트푸드 문화가 생기면서 도심을 중심으로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속속 늘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패스트푸드점을 검색했을 때 이름 끝에 ‘DT점’이라고 붙었다면 드라이브 스루 매장이 포함하고 있는 곳이다.

◇한국형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 주목 = 코로나19 확산에 맞서는 대한민국의 대응 방식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확산 초기 검사 방식과 검사 기기에 대해 발 빠른 승인을 단행했고, 병원 이외에

거점별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세워 의료기관을 통한 확산을 막았다. 병원 안에서 ‘교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선별검사는 단순하게 주차시간과 진료 대기시간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일반 의료기관이라면 의심환자 한 명이 진료를 받은 이후 다시 이곳을 소독하고 방역해야 한다.

그러나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택하면 여기에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세인 가운데 해외 언론이 한목소리로 한국의 대처법을 ‘모범사례’로 손꼽은 배경이다.

◇신학기 교과서와 백화점, 호텔도 드라이브 스루 =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산하면

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은 우리 사회 곳곳으로 확산 중이다.

공공 도서관 휴관이 연장되자 ‘드라이브 스루 대출 서비스’를 시작하기도 했다.

새 학기 교과서를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받기도 한다.

경북 포항에 있는 포항제철중학교는 신입생 학부모에게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신학기에 쓸 교과서를 나눠줬다. 담임 교사가 가방에 교과서 14권을 미리 넣어뒀다가 학부모가 차를 타고 학교 앞으로 오면 길가에서 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학부모들은 코로나19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직접 접촉을 줄이면서 교과서를 받을 수 있어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경북도교육청은 새 학기 교과서를 택배나 드라이브 스루 등 학교 실정에 맞게 배부하도록 각 학교에 요청한 바 있다.

롯데백화점도 이와 비슷한 ‘드라이브 픽’ 매장을 만들었다. 고객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원하는 상품을 결제한 뒤 지정한 시간에 주차 대행 서비스 라운지에 오면, 차에서 내리지 않고 바로 구매 상품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 쇼핑물에서 구할 수 없거나, 이틀쯤 걸리는 배송시간을 기다릴 수 없는 고객에게 인기가.

호텔들도 드라이브 스루 판매 방식을 도입했다. 5성급 호텔의 고급 레스토랑은 음식을 도시락으로 만들어 드라이브 스루 형태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결혼식에 장례식까지 드라이브 스루 = 사회적으로 접촉을 줄이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해외에서는 결혼식과 장례식까지 드라이브 스루 형태로 열려 화제다.

말레이시아 현지 매체인 뉴스트레이츠 타임스는 17일(현지시간)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결혼식을 연 부부의 모습을 보도했다.

신랑과 신부가 길가에 의자를 두고 앉아 있다가 하객이 자동차를 타고 다가오면 가

韓 코로나 DT검사 세계가 주목 학교 새 학기 교과서 배부 활용 해외선 결혼·장례식까지 DT로

슴에 손을 얹어 인사를 한다.

하객은 차에 탄 채로 미리 마련된 상자에 축의금을 넣는다. 신랑과 신부는 이에 대한 답례로 음식이 담긴 봉투를 차에 넣었다. 악수 등 접촉은 하지 않았다.

장례식마저 드라이브 스루 형태가 등장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장례감독자연맹 및 전국의 영안센터와 화상 회의를 열어 장례식에는 소수의 인원만 참석하되 다른 조문객에게는 장례식을 실시간 중계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건당국은 장례식에 참석하는 다수의 조문객 중 바이러스에 특히 취약한 70세 이상 노인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설명했다. 운전자가 차를 몰고 장례식장에 진입하면 유리창을 통해 빈소를 바라볼 수 있다. 조문객은 차에서 조의를 표하고 나가면서 조의금을 전달한다. 다만, CDC는 코로나19 또는 합병증으로 숨진 시신으로부터 조문객들이 감염될 위험성을 고려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준형 기자 junior@

신종플루 때 美 스탠포드대 병원서 첫 DT선별진료

의심환자 증상 작성 후 차에서 1차 문진→단계별 진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부터 우리가 선보인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선별진료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독일에서는 이미 이 방식으로 확진 환자를 걸러내고 있다. “실효성이 없고 위험하다”며 외면했던 일본조차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를 시작했다.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선별진료는 대규모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초기 대응 방식으로 통한다. 한 명의 환자를 진료한 뒤, 진료 공간을 다시

소독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그만큼 시간도 절약된다.

미국 뉴스채널 CNN은 한국 주재 기자가 직접 차를 몰고 경기도 고양시 선별검사 현장을 방문, 문진과 체온측정, 검체 채취 등을 경험하며 이 방식의 효율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드라이브 스루 방식 선별진료는 2009년 신종플루(H1N1) 창궐 당시, 미국 명문 스탠포드 의과대학 병원서 처음 시작했다. 환자들이 병원으로 밀려오기 시작하자 스탠포드 의과대학이 아이디어를 낸 것. 의료진이 직접 병원 응급



실 입구에서 차에 타고 있는 의심환자를 분류하기 시작했다.

먼저 의심환자는 ‘증상카드’를 작성하

고 이를 목에 건다. 차에 탄 채 이동해 1차 문진을 거치고 이후 단계별로 의사를 만나는 방식이다.

이후 스탠포드 대학병원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지 못하게 하는 ‘드라이브 스루’ 분류 및 관리 시스템도 만들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평가 및 검토를 위해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로 전송된다.

‘스탠포드 뉴스’는 이에 대해 “유행성 전염병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교차 오염”이라며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선별진료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초의 아이디어는 미국 스탠포드가 내놔지만, 본격적인 확대와 시스템 구축은 한국이 처음이다. 경북 칠곡병원과 인천의료원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병원이 병원 응급실 앞으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를 제한했다면, 우리나라는 병원 이외에 전국 주요 거점으로 이 방식을 확대했다는 게 차이점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 온국민 TDF

글로벌 TDF 1위 Vanguard의 우수한 운용노하우 반영

(출처 : 모닝스타, 2018.12.31 순자산 기준)

인덱스 펀드 및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저렴한 투자보수의 TDF

1년 수익률 **+14%** (KB 온국민 TDF 2050[A클래스] 기준)

• 기준일 : 2020.01.31(세전) / 과거실적은 단순 참고용으로 미래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KB 온국민 TDF 시리즈

(2020/2025/2030/2035/2040/2045/2050)

투자자의 은퇴 시점을 Target Date로 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자동 조정하는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로,
2020 TDF ~ 2050 TDF까지 총 7개 시리즈로 구성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 됩니다. • 펀드가입을 결정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투자위험, 판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해외의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는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 경제상황 및 환율의 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외투자시 발생한 모든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처리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0-900호(2020.02.28)

KB 온국민 TDF 2050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수익률

(단위 : %, 세전)

구분	3개월	6개월	1년	설정후
펀드(A클래스)	5.21	5.81	13.98	13.02

• 기준일 : 2020.01.31(세전) / • 설정일 : 2017.7.26 / • 클래스 순자산 : 7.82억 / • 운용설정액 : 234.13억
• 출처 : 에프앤가이드, KB자산운용 / • BM : 없음
• 과거실적은 단순 참고용으로 미래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 코로나에 모바일 창립기념식

“지나온 30년보다 나은 30년 위해 뛰자”

‘일류신한’ 리딩컴퍼니 도약 원년
고객중심·가치경영·디지털혁신
고객·직원에 인정받는 회사 강조
‘도전과 혁신’ 30년사 e북도 발간

성대규(사진) 신한생명 사장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해 그룹의 전략인 ‘일류신한’의 지향점을 바탕으로 일류 리딩컴퍼니 도약을 위한 차별화한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생명은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하는 의미와 디지털 시대 트렌드에 맞게 모바일을 통한 영상 시청 및 이벤트로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조한 창립기념식을 가졌다.

신한생명은 1990년 3월 23일에 첫 영업 개시를 시작으로 자산 34조 원의 견실한 회사로 성장하기까지 후발 신생 보험사라는 불리한 여건을 딛고 남다른 성과를 이뤄왔다. 판매채널 다각화, 업계 최초 지점제 도입 등 경쟁사보다 한발 앞선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외형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소비자중심경영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돼 정부 포상 중 최고의



훈격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고, 신용평가기관에서 실시한 보험금지급능력평가에서 12년 연속으로 최고등급인 ‘AAA’를 획득하는 등 우수한 경영안정성을 꾸준히 인정받아왔다.

이와 함께 신한생명은 2020년을 일류 리딩컴퍼니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보험 본연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고객과 직원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차별화한 이로움을 제공하는 회사가 되고자 전략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성 사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

는 고객중심, 가치경영, 디지털혁신 등의 경영방침과 지향점을 같이한다. 먼저 고객 가치를 높이는 시장선도형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고객별 니즈를 분석하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 채널별 특성을 감안한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영업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새로운 가치창출이 가능한 미래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슈테크 기반의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갈 예정이다. 헬스케어 플랫폼, AI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활용 확대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고객저변 확대를 추진하여 디지털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 사장은 “신한생명을 일으키고 반석에 올려준 선배, 동료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다”며 “지나온 30년보다 더 나은 미래의 30년을 위해 모두 함께 손을 잡고 뛰어보자”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한편 신한생명은 지난 30년 동안 신한생명이 걸어온 도전과 헌신의 내용들을 담은 30년사(史)를 발간했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도록 e-book 형태로 제작하여 접근성을 높였다. 서지연 기자 sjy@

공학한림원 대상에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스타일러 등 가전 혁신 이끌어
‘젊은공학인상’ 박광일·강기석

한국공학한림원은 제24회 공학한림원 대상 수상자에 조성진(64·사진) LG전자 부회장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젊은공학인상은 박광일(49) 삼성전자 전무, 강기석(44)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가 받는다.

대상 수상자인 조성진 부회장은 세계 최초 듀얼 스팀 드림 세탁기 개발을 주도했고 의류관리기(스타일러), 트윈워시 세탁기 등을 출시하며 가전 제품 혁신을 이끌었다.

젊은공학인상 수상자인 박광일 전무는 10나노급 D램 기술을 개발, ‘최고속도·최대용량·초절전’ 차세대 D램 양산에 기여했다. 강기석 교수는 고성능 이차전지 전극 소재 개발에 성공해 전지 기술을 선도한다는 평가를 받았



다. 공학한림원은 공학 관련 기술, 연구, 교육 및 경영 부문에서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학기술인을 매년 선정해 시상한다.

대상과젊은공학인상은우수공학기술인을 발굴하고 우대해 기술 문화를 확산하고 국가 경제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1997년에 제정됐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상금 1억 원을, 젊은공학인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5000만 원을 준다. 상금 2억 원은 매년 귀뚜라미문화재단(최진민 TBC 회장)에서 출연한다. 시상식은 2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연기됐다.

홍석동 기자 hong@

문체부 1차관 오영우·환경부 차관 홍정기·중기부 차관 강성천

靑 산업통상비서관 유정열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오영우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과 청와대 비서실 인사를 단행했다.

문체부 1차관에 임명된 오 실장은 서대천교와 서울대 지리학과를 나와 3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의 길에 들어섰다. 문체부에서 정책기획관, 저작권정책관, 해외문화홍보원장 등을 거쳤다.

환경부 차관에는 홍정기 4대강 조사평가단장이 임명됐다. 홍 단장은 연세대 행정학과 출신으로 행시 35기 출신이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장, 물환경정책국장, 자연환경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강성천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이 기용됐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2회에 합격했다. 산업통상지원부 산업정책관, 산업정책실장, 통상차관보 등을 거쳤다.



오영우 차관



홍정기 차관



강성천 차관



이문기 청장



이남구 비서관



유정열 비서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는 이문기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행시 34기다. 국토부 주택정책관, 대변인, 주택토지실장 등을 역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직기강비서관에 이남구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산업통상비서관에 유정열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정일환 기자 whan@



美·中 정부 대변인 코로나19 놓고 트위터 설전

오테이거스 “중국, 우한 의사들 입 막고 온라인 여론검열”
화춘잉 “미국은 무슨 조처 했나? 희생양 삼기 도움 안 돼”



미국과 중국의 정부 대변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문제로 트위터에서 설전을 벌였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춘잉(華春瑩·왼쪽 사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중국은 1월 3일 이후 미국에 코로나바이러스 상황과 대응 관련 정보를 제공해왔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정보 제공을) 늦췄다고 비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모건 오테이거스(오른쪽)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월 3일까지 중국 당국은 이미 코로나19 바이러스 샘플을 파괴하라고 명령했으며,

우한 의사들의 입을 막고 온라인에서 대중의 우려를 검열했다”고 다음 날 반박했다.

이에 화 대변인은 반격에 나섰다. 그는 21일 오테이거스 대변인에게 미국이 2월 2일 중국에서 온 여행객의 입국을 막은 이후 무슨 조처를 했냐면서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코로나19에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화 대변인은 22일 밤에도 트위터에서 백악관이 미국 관리들에게 중국의 코로나19 은폐를 비판하라고 요구했다는 기사를 링크하면서 “자기 귀를 막고 종을 흠친다”(掩耳盜鈴, 엄이

도종)는 이야기를 들어봤나?”라고 반문했다. 이는 감추 수 없는 사실을 덮으려고 자신을 스스로 속인다는 뜻이다. 화 대변인은 “미국인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없나? 자기를 속이고 중국을 모욕한다고 유행병 대응에 도움이 되냐?”라고 지적했다.

이를 보도한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의 초기 대응에서 잘못을 들춰내고 있다”면서 “당시는 정부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해 종합적 이해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때”라고 항변했다. 홍석동 기자 hong@

아랍코코리아, 코로나 극복 위해 성금 10억 기탁

사우디 아랍코의 한국 법인인 아랍코코리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극복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0억 원을 기탁했다고 23일 밝혔다.

성금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의 구입이

어려운 재난 취약계층에 개인 위생용품을 보급하고, 현장 의료진과 방역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방호복·방역용 마스크 및 건강용품 키트, 자가격리자를 위한 생필품 키트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아랍코코리아는 2012년 설립 이래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위한 코딩 스쿨 및 이공계 장에 대학생 장학금 지원, 복지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원, 미세먼지 안전 교육사업 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인사

◆문화체육관광부 ◇실장급 승진 △종무실장 최병구 ◇국장급 전보 △관광정책국장 최보근 ◇국장급 승진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자료운영부장 박종달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 공형식 ◇과장급 전보 △문화정책과장 신은향 △국여정책과장 김지희 △종무1담당관 강성태 △대중문화산업과장 이준호 △저작권정책과장 최중철 △미디어정책과장 김근호 △관광개발과장 천은선 △국립국악원 국악진흥과장 김경남 △국립중앙극장 교육전시부장 강성구

◆산림청 ◇부이사관 승진 △북부재산업과장 임영석 △남북산림협력단장 조병철 ◇서기관 승진 △산림정책과 한동길 ◇기술서기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실 이규명 △산림

자원과 김종근 △국유림경영과 송갑수

◆기상청 ◇고위공무원단 임용 △수치모델링센터장 권영철

◆NH투자증권 ◇센터장 신규선임 △대전금융센터 WM3센터 황태석

◆KR투자증권 ◇신규채용 △구조자금운본부 PF팀 부장 박시영

◆부국증권 ◇선임 △이사(재선임) 오경수 △사외이사 김운창 ◇승진 △상무보 이종성 ◇보직 부여 △감사업무총괄책임자 이종성 △총무부장 박준근

◆한겨레신문 △대기자 김이택 △경영지원실장 이상준 △경제사회연구원장 유강문 △광고국장 지정구 △논설위원실장 안재승 △독자서비스국장 우현제 △디지털미디어국장 직무대행 엄원석 △미래비전실장 정연욱 △사업국장 이정용 △영상

미디어국장 강희철 △저널리즘책무실장 이봉현 △제작국장 이인우 △출판국장 강대성 △논설위원실 선임논설위원 박전수 △미래비전실 인재개발부장 이원세

부음

▲한익수 씨 별세, 염봉남 씨 남편상, 한상우(서원 대표)·은경·지혜 씨 부친상, 이영래·이형기(HDC현대산업개발 전무/아시아항공 미래혁신준비단장) 씨 장인상 = 22일, 동국대 일산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24일 오전 11시, 031-961-9400 ▲김규엽 씨 별세, 김상완(현대해상화재보험 전무)·광배·희량·남희 씨 부친상 = 23일, 대전 성심장례식장 VIP 3호실, 발인 25일 오전 9시30분, 042-522-4494

김이수 공직자윤리위원장 위촉

김이수(67)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3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제17대 위원장에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다.

신임 김 위원장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학과 졸업 후 사법시험 19회에 합격해 인천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 현재 재판관과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을 역임한 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 위원장은 또 문재인 정부 초기였던 2017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지만,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부결로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그친 바 있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유제철 환경산업기술원장 취임

유제철 전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이 23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5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취임식은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유 신임 원장은 취임식에서 “미세먼지 등 우리 주변의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해 4차 산업 기술과 접목한 융·복합 기술개발에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며 “녹색산업이 성장동력이 되도록 환경 산업체 지원 및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신임 원장은 제35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제29대 대구지방법원장, 환경부 국제협력관, 대변인 및 생활환경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램리서치코리아 대표이사 김성호

램리서치 한국 법인의 신임 수장으로 김성호 대표이사가 선임됐다.

램리서치는 김성호 사장을 램리서치의 한국 법인인 램리서치코리아, 한국램리서치, 램리서치매뉴팩처링코리아의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성호 신임 대표이사는 1993년부터 1996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



위치한 램리서치 본사에서 프로세스 엔지니어를 시작으로, 사업개발 수석 디렉터를 담당하며 전 세계 반도체 고객사들에 대한 지원 업무를 지휘했다. 2008년부터 램리서치코리아 고객지원 비즈니스 그룹 및 글로벌 고객 부문장을 거쳐 지난해부터 램리서치코리아 사장직을 수행했다. 송영록 기자 syr@

추창근 칼럼



논설실장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위기에는 전대미문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 한국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 있는 사람들 누구인가? 청와대 참모들, 각 부처 장관들 경제현장을 제대로 알고는 있는가?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나? 기업과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위기관리 능력과 식견을 가진 인물부터 끌어와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경제를 망가뜨릴 것으로 누가 짐작이나 했겠는가. 전염병 공포에 질린 시장이 추락하고, 무너지는 시장이 공포를 확대 재생산하는 악순환이다. 대공황의 암울한 그림자가 짙다.

금융시장은 패닉의 연속이다. 미국과 아시아, 유럽 증시가 꼬리를 물고 초토화하고 있다. 한 달 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 30000을 넘보면서 거침없던 뉴욕증시가 3월 18일 20000선이 붕괴됐다.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약세장으로 고꾸라졌다.

한국 증시는 모든 최악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3월 9일 코스피지수 2000이 무너졌다. 13일 1800, 17일 1700, 18일 1600이 깨졌다. 19일 역대 가장 큰 폭인 133.56포인트(8.39%) 빠지면서 1500선 아래로 추락했다. 20일 한국과 미국의 600억 달러 통화스와프 체결로 한숨 돌리는 듯했지만, 23일 다시 내려앉았다. 주가는 금융위기 때인 2009년 7월 수준으로 뒷걸음쳤다.

외국인들이 무차별로 주식을 내다팔고 있다. 3월 들어 누적 순매도 금액이 10조

원을 넘었다. 1999년 1월 이후 월간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원·달러 환율 폭등은 당연한 결과다. 19일 환율이 40원이나 한꺼번에 올라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 23일 환율도 1266.5원을 기록했다. 최고의 가치인 달러 말고 기댈 곳 없는 시장의 반응이다.

충격파가 언제까지 증폭될지, 추락의 바닥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 1997년과 2008년의 위기는 기업 부실과 금융의 문제였지만, 코로나 사태는 실물부터 가라앉은 복합위기다. 과거와 차원이 다른, 글로벌 경제 생태계의 근본부터 마비되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은 인류의 일상을 멈춰세웠다. 각국은 국경의 빗장을 걸고 국가 간 이동을 막으면서 각자 도생이다. 미국과 유럽의 폭발적인 감염 확산은 수습이 안 되고 있다. 나라 안, 또 밖에서도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니 경제활동도 이뤄지지 않는다. 글로벌 생산과 소비가 중단되고 수요와 공급의 사슬이 끊기고 있다. 물건을 만들기도 어렵고, 만들어

서 사줄 곳도 없다.

금융 패닉은 시작이다. 생산과 소비, 투자, 교역 등 실물경제 붕괴가 곧 지표 추락으로 확인될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무역에 기댄 한국 경제의 답이 없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저소득층, 자영업자들은 이미 무너지고 있다. 중소기업들도 한계선상에 와 있고, 대기업까지 위기가 전이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모든 산업, 모든 기업, 모든 계층이 절박한 벼랑에 내몰리고 있다. 심각한 후폭풍은 기업들의 줄도산과 대량 실업이다. 국민경제와 민생의 나락(奈落)이다.

청와대의 경제비상회의가 가동됐다.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이다. 전쟁의 지휘봉을 잡은 문재인 대통령은 미증유의 위기, 비상한 상황, 전례 없는 대책을 계속 강조한다. 달라지고 있나? 시장은 신속·과감한 대책을 요구하는데, 대응은 한발짝 늦고 충분하지도 않다. 약발이 먹이지 않는다.

한국 경제는 코로나 이전 이미 심각한 기저(基底) 질환을 앓아 왔다. 경제활력이 얼어붙고 성장동력이 실종됐으며 기업투자가 쪼그라들어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청와대와 정부가 실용을 무시하고, 이념으로 경제정책을 재단해온 탓이 크다. 소득 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를 내세운 반(反)시장, 대기업 배척, 노동편향 정책의 폭주가 가져온 결과다. 가라앉은 성장과 고용의 감소는 세금 풀어 떠받쳐왔다. 바닥인 경제체질에 코로나 사태는 치명타다.

비상경제회의도 전혀 미덥지 않다.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위기에는 전대미문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 한국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책임 있는 사람들 누구인가? 청와대 참모들, 각 부처 장관들 경제현장을 제대로 알고는 있는가?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나? 기업과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위기관리 능력과 식견을 가진 인물부터 끌어와야 한다. 사람 바꾸기 어렵다면 발상부터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어떤가? 일상적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쟁이 몸에 밴 유능한 민간 기업인들에 비상한 위기대응책을 맡겨보는 것이... 그들의 역량에 더 믿음이 간다. 아니면 그들의 지혜라도 무조건 빌어와야 한다. kunny56@

정책발언대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오늘도 집을 나서며 마스크를 꺼내 들었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찾던 물건이었지만, 이제는 휴대전화처럼 챙기는 생활필수품이 됐다. 코로나19가 일상을 바꿨다. 여럿이 모이는 만남도 부쩍 줄었고, 복적이던 쇼핑물이나 놀이공원에도 인적이 드물다. 이동 자제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송두리째 일상을 멈출 수는 없는 노릇이라 사람들에게 마스크의 도움은 필수가 됐다. 아직 뚜렷한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상황에 마스크는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는 고마운 존재가 됐다.

지난 11일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 유행에 진입했다는 의미로 ‘팬데믹’을 선언했다. 아직 안심할 순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다행히 큰불은 잡혀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중국은 이미 상당한 인명 피해를 입었고,

유럽 대륙 전역과 미국, 중남미까지 안전지대가 아니다. 자유롭게 오가던 국경에 빗장이 걸리고 몇몇 국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확산세가 단기간에 진정되지 않으면서 세계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우선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피해가 크다. 중국은 지난해 세계 경제의 16%를 책임졌다.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생산거점을 구축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축이 됐다. 하지만, 지난해 말 시작된 코로나19는 중국 내 많은 공장과 물류를 멈춰 세웠고,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다. 중국이 상황을 종식시키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세계 경제가 순식간에 코로나19 영향권에 놓인 점이다. 금융시장부터 동요하기 시작했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일제히 대응에 나섰지만 커지는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엔 아직은 역

부족하다. 일상생활과 소비활동 위축도가 시화되고 있다. 썰렁한 식당과 문 닫은 상점은 사람들의 불안감을 그대로 드러낸다. 생산현장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공급망이 파열음을 내고 수요도 감소하면서 정상적인 공장 가동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고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앞에 경고등이 켜졌다. 세계 경기 하락으로 수출이 부진해지면 경제 성장의 핵심축이 흔들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 중국, 유럽 등 주력 시장의 동반 침체는 전체 수출 전선에 먹구름을 몰고 올 가능성이 크다. 당장 글로벌 수요가 가라앉으며 물건 팔 곳을 찾기가 쉽지 않고, 국가 간 교류가 어려워진 탓에 업무상 출장조차 가로막히고 있다.

수출기업도 이번 충격을 덜어줄 마스크의 도움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 비상 상황을 홀로 견뎌내기에는 힘이 부치기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보다 기초체력이 약한 중

소기업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수출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이 95%가 넘고, 종사자 수를 봐도 전체의 80%를 넘는다. 우리나라 수출의 한 축을 맡은 만큼 그 중요성은 대기업 못지않다. 산업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수출 유관기관이 합심하여 중소기업 지원에 힘을 쏟는 것이 때문이다.

무역보험도 중소기업을 지켜줄 마스크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자금이 급한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제도를 손질해 보험금 지급도 빠르게 했다. 새로 발굴한 바이어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보험료는 낮추고 보험한도는 높였다. 특히, 17일 추경으로 확보한 자원은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에 투입된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물건을 선적하고 바로 현금을 손에 쥘 수 있어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어깨를 가볍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기업이 이번 어려움도 곳곳이 이겨내고 파스한 봄의 온기를 하루빨리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다.

“스타트업 지원 정책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만 뒀으면 좋겠어요.”

최근 만난 한 퍼스널 모빌리티(PM) 업체 대표의 말이 새롭진 않았다. 업종을 막론하고 스타트업을 이끄는 대표들에게 ‘원하는 정부 지원책’을 물으면 하나같이 “지원은 고사하고, 사업을 가로막지만 않으면 좋겠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유난히 그 대표의 호소는 오래도록 인상에 남았다. 최근 타다가 서비스 종료를 알리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탓이다. 얼마든지 택시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PM 업계에 타다의 사례는 남 일이 아니었다.

도시 미관 등을 이유로 얼마 전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의 주차 문제에 관여하는 움직임도 업계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 서비스 지역 내 어디든 주차가 가능한 현재의 도크리스(Dockless) 방식 대

기사수첩



이 지 민 IT중소기업부/aaaa3469@

서울시의 PM 규제 ‘타다 사태’ 따라가나

〈퍼스널 모빌리티〉

신 허용된 장소에만 주차하게끔 하는 방안을 서울시가 추진하면서다. 업체에 따르면 이달 18일 서울시 관계자는 10개 가까이 되는 PM 업체 대표들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다. 논의에 참여한 한 PM 업체 대표는 “미팅을 한 서울시의 담당 사무관은 산업에 관한 이해도가 매우 낮았을뿐더러, 법적으로 서울시가 주차 방식을 바꾸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어서 MOU 형식을

이야기했다”고 귀띔했다.

안 그래도 PM 업체들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유자전거 따릉이와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라고 입을 모은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인도뿐 아니라 자전거도로로 달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만의 경쟁력인 도크리스 방식까지 규제해 따릉이식 주차가 필요조건이 된다

면 전동킥보드의 장점을 서울시가 다 빼앗는 셈이다.

PM 업계 관계자는 “따릉이를 운영하는 서울시가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를 어떻게 볼지 짐작은 간다”고 말했다. 서울시 입장에서 지원보다 규제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뜻이다. 지난해 1~8월 따릉이는 52억 원의 적자를 냈고, 서울시는 2만 5000대가량의 따릉이를 올해 4만 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들은 서울시가 노골적으로 서비스를 금지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타다도 그랬다. 타다 서비스를 금지한 게 아니라 플랫폼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기여금을 내고 정부 허가를 받으라고 한 것뿐이다. PM 업체들이 ‘주차 방식’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서울시에 짙은 기시감을 느끼는 이유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버나드 몽고메리 명언

“리더의 최우선 의무는 낙천주의이다. 당선과 미팅을 하고 난 뒤 부하직원이 사기충천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리더가 아니다.” 영국 군인, 원수. 2차 세계대전에 육군 소장으로 참전해 제8군 사령관으로 북아프리카 작전을 맡아 롬멜 휘하의 독일군을 격파, 전국(戰局)에 승기를 마련하였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는 영국군 총사령관으로서 활약, 원수가 되었다. 오늘 그는 세상을 하직했다. 1887~1976.

☆ 고사성어 / 응대여류(應對如流)

물 흐르듯 응대한다는 뜻으로, 언변의 능수능란함을 비유하는 말. 출전은 남사(南史). 남조(南朝) 양(梁)나라 서면(徐勉)이 상서좌승(尚書左丞)으로 국정을 도맡아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들어갈까 말까 할 만큼 공무에 파묻혔다. “나는 나라를 위해 가정을 잊은 사람이니, 내가 죽고 나면 그렇게 기록될 것이다”라고 했다. 책상에는 공문서가 인제나 수북이 쌓여 있었고 실 틈 없이 일의 연속이었지만, 누가 찾아오면 반가이 맞아 들어 대화를 하는데 그 ‘말 대답이 물 흐르듯이[應對如流]’ 자연스러웠다고 한다.

☆ 시사상식 / 제로금리(Zero Interest Rate)

실질이자율을 사실상 0%에 가깝게 만드는 정책. 최저금리는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고 소비촉진을 통해 경기침체 가능성을 줄여주는 이점이 있다. 장래가 불안한 노년층 등 이자소득자들의 소비가 위축될 수 있고 부동산 투기, 주택가격 폭등 등 자산버블이 우려되며,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속담/가꿀 나무는 밑동을 높여 자른다
어떠한 일이나 장래의 안목을 생각해서 미리부터 준비를 철저히해 해 두어야 한다는 뜻.

☆ 유머/ 받아놓은 날은 어김없이 온다
남자가 말없이 술만 마시자 마담이 “무슨 일 있으세요?”라고 물었다. 그가 한 말.

“집사람과 다투고 한 달 동안 서로 말하지 말자고 했는데 오늘이 한 달 되는 날이에요.”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4·15 총선 관전법

우리 정치는 ‘헛발질 게임’이다. 내 실력이 아닌 상대방의 실수로 이기는 게 다 반사다. 블랙코미디 같은 정치 현실이다. 국회의원 선거 같은 단기 레이스에선 말 실수 등 단 한 번의 헛발질이 승패를 가른다. 4년 전 20대 총선이 그랬다. ‘1與다野구도’로 치러진 선거인 만큼 누가 봐도 여당인 새누리당에 절대 유리했다. 180석 얘기까지 나왔다. 결과는 민주당 승리였다. 새누리당의 공천 내용이 결정타였다. 친박계가 친이계를 찍어내는 과정에서 불거진 ‘육새 나르샤’ 파동에 중도 유권자는 등을 돌렸다. 민주당은 텃밭 호남을 국민의당에 내주고도 이겼다. 19대 총선(2012년)은 정반대였다.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공천 실패가 중요한 패인으로 꼽혔다. 17대 총선(2004년)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이 모든 이슈를 삼켰다. 한나라당의 탄핵 자충수에 열린우리당은 힘을 이지 않고 대승을 거뒀다.

3주 앞으로 다가온 총선 결과를 예단할 순 없다. 선거 국면서 3주는 두 차례 정도 판세가 요동칠 수 있는 시간이다. 변수는 세 가지 정도다. 코로나19 민심과 민주당의 위성비례정당 창당, 통합당의 공천갈등이다. 어떤 변수에 중도 유권자의 마음이 바뀔지나에 따라 선거 판도가 결정된다.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 사태다. 현재까지 민심은 여당에 유리한 것 같다. 대통령 지지율이 여전히 45% 이상이고 민주당도 지지율에서 통합당을 압도하고 있다. 코로나 대처가 성공적이라는 국제 사회의 평가와 맞닿아 있다. 패닉 상황에 빠진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 백 번 맞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기 종식’ 발언 논란과 정책 실패가 불러온 ‘마스크 대란’도 큰 변수가 되지 않는 분위기다. 야당에 대한

데스크칼럼

이재창

오프라인뉴스룸 에디터



시선이 싸늘하다는 의미이지만 정부에 적극적인 신뢰를 보내는 것도 아니다. 코로나 방역의 주역은 정부가 아니다. 그들은 조연이다. 현장에서 피땀 흘린 의사와 간호사, 이들을 물심양면으로 성원한 기업인과 사회 각계의 따뜻한 손길, 마스크 하나 사기 위해 줄을 30분씩 서는 불편을 참아 준 국민이 주연이라는 데 이의를 달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은 판단을 유보한 채 지켜보고 있다. 코로나 민심이 어디로 향할지 좀 더 두고 봐야 하는 이유다.

코로나로 급격히 하강하는 경제 상황도 변수다. 이번 사태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금고가 빈 것은 빌려서 채웠고 금융사 파산은 돈을 찍어 막을 수 있었지만 코로나 위기는 실물이 얼어붙어 산업 전반을 마비시키는 복합위기다. 기준금리를 1.0%P 내린 미국의 ‘빅컷’ 조차 무용지물이었다. 고용이 불안해지면서 가계에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다. 소비 위축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자금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파산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국민의 상황이라면 선거는 해볼 것도 없지만 이번은 글로벌 위기라는 점에서 다를 수 있다. 특히 서민 구제 명분으로 이뤄질 서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 뿌리기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변수다.

민주당이 결국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었다. 조국 수호세력과 손잡았다. 의석을 늘릴 수 있다면 대의 명분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집권당의 현주소다. 통합당의 비례의석 도둑질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하지만 공색하기 그지없다. 선거법 통과 때 이미 다 예상됐던 일이다. 그걸 알면서도 절대 불참을 약속했던 여당이다. 그러니 소수당의 협력을 끌어내 제1공약인 공수처법을 처리하기 위한 꼼수였다는 말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위성정당으로 비례의석 7~8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민심을 너무 가볍게 본 것이다. 중도층이 이탈하면 지역구에서 더 많은 의석을 잃을지도 모를 일이다. 당 최고위원들조차 반대한 이유다. 주변 석개하는 게 민심이다.

통합당은 뭇쳐도 어려운 상황에 적전분열하고 있다. 공천 감동은커녕 사천논란에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낙마했다. 이석연 대행체제 유지로 갈등을 봉합했지만 개혁공천의 명분을 다 날려버렸다. 미래한국당의 공천 내용을 통합당이 뒤집는 생소도 연출했다.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최고위원 등 보수 핵심 인사들이 공천 탈락에 반발해 잇따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텃밭 선거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서 서울에 출마한 당 주요 인사 대부분이 여당에 밀리고 있다. 이대로 가면 수도권 선거 참패가 예상되지만 밭고름 싸움에 위기감이 별로 엿보이지 않는다.

선거전이 점입가경이다. 어김없이 헛발질 게임으로 가고 있다. 유권자에게 최선도 차선도 아닌 차악의 선택을 다시 강요하는 형국이다. 결국 고민은 유권자 몫이다. 국가의 운명이 이념서 자유로운 30% 중도 유권자의 선택에 달렸다. leejc@

사설

규제·노동개혁,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동원을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이 글로벌 경제의 근간을 집어삼키고 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충격은 더 크다. 작년 2%에 턱걸이했던 경제성장률은 이미 마이너스 성장으로 후퇴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런 전망조차 지금 의미 없을 정도다. 정부는 11조 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금융시장안정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외환위기의 안전판인 한·미 간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까지 끌어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주가가 폭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금융시장이다. 온갖 대책도 밀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문제가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 확산에서 비롯된 만큼,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로 귀결된다. 글로벌 차원으로 번진 상황은 기업 부실이나 금융시스템의 고장으로 인한 위기의 차원을 훨씬 넘고 있다. 과거의 국지적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게 최대의 리스크다. 지금 살아남는 것보다 중요한 과제는 없다는 얘기다.

유례없는 재난에 국민의 생계 안정과, 수출과 내수의 활성화, 금융시장 진정보다 급한 건 없다. 국민의 일상 생활이 멈추면서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다. 업종과 규모 가릴 것 없이 기업들의 줄도산이 불 보듯 뻔하다. 대량 실업으로 민생이 벼랑 끝에 내

몰리는 최악의 상황이 불가피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3일 경제위기 상황에 기업활력을 높이기 위한 8대 분야, 40대 입법 과제를 긴급 제언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할 것과, 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 대형 마트 의무휴업일 및 온라인 쇼핑 영업시간 제한 완화, 탄력근로제 개선, 해고요건 완화, 사업장 내 시설 점거행의 금지, 대체근로 허용 등의 내용이다. 경제계가 줄곧 주장해온 규제와 노동개혁의 핵심 현안들이다.

한두 차례 되풀이된 절박한 호소도 아니다.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성장동력을 만들고, 기업투자를 살려 신산업을 창출하면서 일자리 창출의 근간으로 삼자는 요구였지만 늘 외면당해 왔다. 포퓰리즘에 경도된 이념 지향의 경제정책 기조에 어긋나고, 제 밭그릇부터 챙기는 노동계의 반발을 감당할 수 없었던 탓이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경제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야말로 미증유의 사태다. 그 충격이 얼마나 넓고 깊을지 여전히 짐작조차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허악한 경제체질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단 살아남지 않고는, 무너진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기회마저 놓치게 된다. 기업부터 살려내지 못하면 생산, 수출, 소득, 소비, 고용 모두 망가진다. 경제 정책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유현희의 뉴스 카트

유통바이오부 부장대우



술은 온라인 구매가 가능할까. 현재로서는 가부를 논하기 어렵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스마트폰 앱이나 PC에서 주류를 미리 주문한 뒤 매장에서 픽업하는 온라인 주류 판매 중개 서비스를 허용했다.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나 SPC의 ‘해피오더’ 같은 O2O 서비스가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주류업계에서는 주류 온라인 판매의 빗장이 반쪽만 풀린 것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주문자가 직접 픽업하는 것만 가능해졌을 뿐, 여전히 배달이나 온라인 배송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전통주에 대해서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전통주가 주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7%임을 감안할 때 지극히 제한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주류의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이유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주류 배달이 전혀

반쪽만 풀린 주류 온라인 판매 빗장

불가능한 걸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수제 맥주나 각테일 같은 주류만 주문할 경우 0.20만 가능하지만 차킨이나 피자, 야식을 주문할 때 주류를 함께 배달받는 것은 가능하다. 안주 없이 술만 배달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안주와 함께 주문하는 것은 합법인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는 셈이다.

주류의 온라인 판매가 막혀 있던 이유는 미성년자의 음주를 제한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온라인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 없도록 일종의 장벽을 세운 것이다. 그러나 담배와 비교하면 이 역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담배 역시 권련의 경우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없다. 그러나 권련형 전자담배나 액상형 전자담배는 성인 인증만 하면 온라인에서 어렵지 않게 구매할 수 있다.

주류업계에서는 주류에 대한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다면 침체된 주류 시장이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들은 전자담배처럼 성인인증 후 주류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가정용 소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조차 주류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면 편리한 점이 많다. 맥주의 경우 박스로 구매할 때 일부러 대형마트를 방문해야 하지만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다면 무거운 맥주박스를 옮기는 수고를 덜 수 있다. 또 업소용 판매가 줄면서 침체된 위스키 시장에 가정용 소비가 늘며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꼭꼭 닫아 걸었던 빗장이 조금이나마 풀린 것은 업계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확산 중인 가운데 호프전문점이나 수제맥주 전문점 등 외식 자영업 매장들은 한산하기 그지없다. 여의도에서 맥주 전문점을 운영 중인 A 씨는 “새벽 2시까지 하던 영업을 오후 11시면 정리한다”며 “매출이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토막으로 줄었다”고 토로한다. A 씨뿐만 아니라 주류전문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누구나 같은 위기를 겪고 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려면 이제라도 이왕 푸는 빗장을 좀 더 활짝 열면 어떨까. yhh1209@



안전한 필러 시술

최근 의료진 사이에서 필러 주입의 안전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어 많은 이들이 혼란스러울 것이다.

어떤 환자들은 체내 주입한 필러액이 인체에 남아 부작용을 일으킬까 두려워한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히알루론산 필러의 경우 효과가 지속하는 기간은 보통 6개월~1년이다. 주입한 필러액은 대부분 체내에 흡수된다. 주기적인 시술이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필러 시술을 위해 주기적으로 병원을 찾는 건 번거로운 일이다. 이에 최근에는 한 번 시술로 10년씩 유지되는 ‘반영구 필러’까지 나왔다. 부작용 없이 아름다움이 지속한다면 나쁠 이유가 없다. 혹시 문제가 생겼다면 히알루론산 계열 필러는 히알라제라는 약물로 쉽게 분해가 가능하다.

필러를 주입한 부분이 처지거나 퍼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지만, 이는 단순한 착각이다. 대부분 얼굴이 꺼지거나 볼륨이 부족해서 필러 시술을 받는다. 시술 후 시간이 지나면서 필러제는 조직과 융합하고 빠진다. 필러를 갖 주입해 통통했던 얼굴보다 상대적으로 처져 보일 수는 있다.

필러를 주입할 때는 혈관이 적고 안전한 부위에 가능한 적은 용량을 나눠서 천천히 주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치약 짜듯이 푹 짜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물당을 하면서 편평하고 고르게 주사한다. 적절치 않은 부위에 대량을 주입하면 중력의 영향을 받아 당연히 처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필러는 어떤 시술보다 의료진의 실력에 따라 결과가 상당히 좌우된다.

100% 부작용 없는 시술은 없다. 어떤 시술이든지 크고 작은 위험을 동반한다. 이런 위험으로부터 자유롭고 싶다면 미용 시술을 안 받아야 하지만 많은 이들이 그보다 예뻐지고 싶은 욕구가 더 크기 때문에 미용 성형은 현재까지도 존재하는 것이다.

간단한 뽀피 시술만 필요한 사람이 있고, 뼈 자체를 개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필러 시술은 하면 안 된다” 또는 “뼈 수술은 위험하니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같은 말은 맞지 않다. 검증된 제품과 함께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을 만난다면 필러는 매우 안전한 치료제다.

반재상 바노바기 성형외과 대표원장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1

50,000,000

한 명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덟 살에 처음 전화번호가 생긴 당신
방향 감각은 없지만 드라이브가 로망인 당신
눈 뜨면 날씨보다 음악 차트를 먼저 확인하는 당신
드라마 밤샘 정주행이 주말의 행복인 당신
종일 비워두는 집이 염려되는 당신
출근 없이도 그룹통화로 회의하는 슈퍼맨 당신
걱정이 많은 올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미소 짓는 당신
당신이, 당신이,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SK텔레콤은 다 다르기에

오직 당신을 위한 SK텔레콤
그래서 5,000만 개의 SK텔레콤

한 명 한 명의 초시대를 만듭니다
당신의 초시대를 만듭니다

